JUL 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66 1982년 7월 5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July 5, 1982

지하철공사장 또 붕괴 차 불타고 5명 중경상

(LA지사)2일 아침 10시45분경 서울 서소문동 새 대한항공 빌딩 신축공사장앞 지하철 2호선 공사장에서 복공 (공사장 덮개 철판·크기 가로25m, 세로30 m)이 주저앉으면서 현장위를 지나던 승용차와 작업중이던 크레인등이 25m지하로 떨어졌다.

샘벼락을 맞은듯 추락한 승용차(레코드·로열)는 불까지나, 차주 김태진(40)씨와 운전사 이광수(33)씨가 중상을 입었고, 현장 토목공 노점만(29)씨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시공자는 극동건설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발 로이터통신은 1일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 시청부근 지하철공사장이 1일 무너져 자동차 1대에 타고있던 승객이 사망하고, 최소 10명의 인부가 땅속에 갇힌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4월 에는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시내버스 1대, 기중기 2대가 지옥에 떨어지듯 추락, 15명이 매몰됐고, 4명 사망, 6명이 실종됐었다. 이때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공사장의 안전검사에 뒤늦게나마 착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 사고로 박영수 서울시장등 일부 고위관리들이 목의 달아 났었다.

이외무 일본 방문 $60억차관 토의

(서울1일=연합)미국을 방문중인 이범석외무장관은 귀국길에 3일간 일본을 방문, 스즈끼수상을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외무부 관리들이 전했다.

이장관은 6일부터 8일까지 사쿠라우찌·온시오 일본외상, 와다나베·미치오 재무상, 아베·신타로 통상상및 고모도·도시오 경제담당국무장관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현안의 60억달러 대한경제차관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한편 외무부 관리들은 한국이 차관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다는 일본신문의 보도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60억달러 차관요청을, 국가개발차관 23억달러및 상업차관 17억달러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일본신문이 보도했었다.

연방·주수상 경제비상회의

임금인상 불일치, 주택·고용에는 합의

(오타와)트루도정부는 28일 예산안 발표에 이어 30일 긴급 연방·주수상회의를 개최했으나 연방정부가 제안한 임금동결문제에 주수상들의 지지를 못 얻었다.

5시간의 회담후 주수상들은 연방정부와 주택·고용창출문제에만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수상들은 트루도수상에게 임금통제는 주정부재량에 맡기라고 말했다.

브리티쉬·콜럼비아주의 윌리암·버네트수상은 주공무원들의 봉급인상률은 8~14%로, 파우리 매니토바주수상은 13.5%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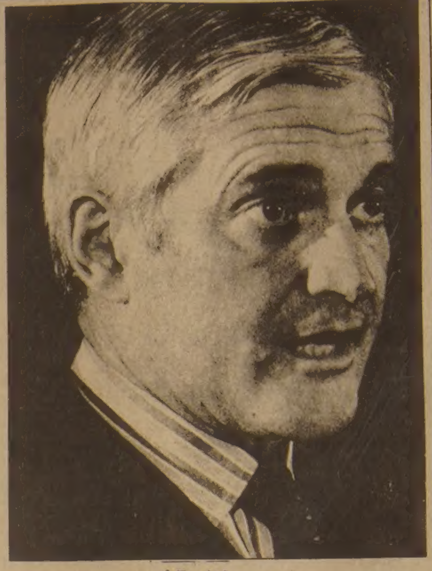
연방예산안은 앞으로 1년간 임금인상률을 6%로 억제했는데 이것은 연방공무원들에만 적용되며 주정부나 기업은 이에 협조토록 촉구받았다.

트루도수상은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을 6%로 억제하려는 노력은 노조나 주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다음주에 노조지도자들과 임금동결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트루도수상은 현재 임금인상률 6%억제를 강제적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강제임금통제령을 내리려면 주수상들과 합의, 비상시국을 선포해야 한다.

한편 트루도수상은 연금생활자들의 연금인상수준 6%에 대한 야당들의 비난에 대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인상요구를 억제하면 인플레는 자동적으로 6%선으로 내려와 연금인상이 6%로 묶여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율을 카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존·터너

해외동포3명에 간첩혐의

망명 "기관원"가장 남한에 입국

(서울 1일=연합)해외동포 3명이 북한을 위한 간첩활동혐의로 체포됐다고 국가안전기획부(전 중앙정보부)가 1일 발표했다.

체포된 3명은 서독거주 김진모씨(43), 스웨덴 교민 김동현씨(25), 일본에서 북한에 협력한 김양수씨(46)이다.

안기부발표에 따르면 김진모씨는 77년 서독광부로 있을 때 북한기관원에 의해 발탁된뒤 북한에서 본격적인 간첩훈련을 받은후 미화 1만달러의 공작금을 갖고 서독으로 돌아갔다. 김은 서독에 망명한 북한의사로 가장했다가 지난 3월30일 남한에 입국했다.

김동현씨는 작년 9월4일 유학생 여권으로 출국한 후 지난 4월27일 스톡홀름의 북한대사관을 방문, 북한에 거주를 요청했다. 북한대사관은 김이 북한으로 가기전 한국대사관과 스웨덴정부간에 분열을 조장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은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이 자기를 3일간 스톡홀름의 호텔에 감금시켰다고 스웨덴 당국에 거짓 고발했으나 스웨덴 경찰이 오히려 허위임을 발견,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했다.

김은 남한으로 망명하는 북한기관원을 가장, 한국에 재입국했다.

김양수씨는 65년 12월 일본서 북한기관원으로 부터 훈련을 받은 이후 남한의 군사배치 기밀을 북한측에 제공해왔다. 81년10월 상용여권으로 일본을 재방문한 김은 한국의 산업정보도 북한에 제공했다.

◆알 림◆

항공편 관계로 모국판은 3일(토)자만 오늘 발행하고, 5일자(월)는 다음호에 합판 발행합니다.

차기수상은 존·터너?

트루도의 후계자로 유력시

트루도정부는 지난 28일 긴급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묘약은 못된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등장한 문제는 그러면 과연 트루도 대신 누가 자유당 당수로서 캐나다를 다스려야 이나라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수당의 조·클락은 수상으로서 큰 기대를 못모으고 있으며, 그래도 자유당이 보수당보다는 났다는 점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서 자유당의 지도자로서 가장 유력시되고있는 인물중의 하나가 존·터너 전 재무상.

최근 캐나다 언론들이 점점 새로운 수상감으로 물망에 올리고 있는 터너는 많은 자유당 참모들이 84년 총선에서 유일한 당수후보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52세의 토론토출신 변호사인 터너는 비지네스용으로 6년전 트루도수상과 마찰한뒤 급작히 재무상직을 내놓은 이후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트루도와 터너가 가장 심각히 대결한 경제문제는 임금및 물가통제정책. 터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루도는 이 정책을 강행, 경제악화의 주원인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치못했다.

일부보도에 의하면 긴급예산안 작성에 존·터너가 일익을 담당했다. 그는 최근 수주간 알란·맥케큰재무상과 수차례 면담했다. (그러나 터너자신은 이 보도를 부인했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맥큰재무상이 터너의 처방을 중요시 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년초 터너는 맥케큰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난, 현 정부가 예산안 작성에서 외부의 충고를 안 들는다고 지적했었다.

트루도가 과연 차기 선거에서 후계자로 터너를 밀고, 은퇴할 것인가 여부는 캐나다의 장래를 전 중요한 문제여서 더욱 주목된다.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북한 경계 강화

반대자 망명 대비

(도꾜2일=연합)북한은 지난 5월 10명의 장성급을 포함한 상당수의 장교들이 중공으로 망명(※한국일보 1일자)한 이후 중공파의 국경을 봉쇄하고 해안지역을 포함한 국경의 경계태세를 "상당히" 강화했다고 친한계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일본의 일간지 통일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을 제일 처음 보도한 이 신문은 북한 지도층이 이 사건에 크게 놀라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조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정통한 북한소식통들을 인용한 이 신문은 망명한 북한군 장교들은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반기를 든 때문에 숙청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북한서 지난 4월중순 권력세습에 반대하는 상당수 장교들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투옥·강등시키는 대규모 숙청이 있었다고 통일일보는 보도했다.

북한은 또 최근 일본과의 어업협정갱신을 거부했는데 이같은 거부의 원인은 이 협정을 감독하는 해군장교들이 일본어선을 타고 일본 혹은 제3국으로 망명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의 외국대사관·영사관주변에는 북한인들의 망명을 막기위해 무장한 군인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HAPPY BIRTHDAY CANA

캐나다탄생 115주년인 1일 캐나다·데이 공휴일은 맘껏 개인 초여름의 날씨때문에 여기저기서 벌어진 축하행사의 무드를 더 한층 고조시켰다.

퀸즈·파등에서는 핫·도그를 5¢에 파는등 푸짐한 잔치가 있었고 특히 온타리오·플레이스에서는 밤8시부터 토론토·심포니와 광송 연주가 헤이굿·하디와의 협연[사진]을 보기위해 몰려온 천여명의 인파로 포럼(Forum)의 가장자리 풀밭까지 빈틈없이 메워졌다.

밤 11시 온태리오·플레이스에서는 불꽃놀이와 아울러 "Happy Birthday Canada"라고 쓴 비행기가 화려하게 밤하늘을 장식했다.

전에는 도미니온·데이라고 불렸으나 자유당 연방정부는 영국 식민지냄새가 나는 이말을 없애려고 노력중이다.

금주의 행사 (7월5일~11일)

◆7일(수)하오7시~11일(일) 여름가족수양회(중앙교회 주최)
강사: 한진관목사
곳: Pine Orchard Camp 연락처: 961-8361

◆9일(금)하오7시~10일(토)상오11시-하오5시30분
강사: 문동환 박사 연합교회 수양회
주제: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의 자세
곳: 토론토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 West)
연락처: 293-8162

◆10일(토)경동고교동창 야유회
곳: Glen Haffy Conservation Park (Forestview Park)
연락처: 494-5308 (장 진무)

◆10일(토)상오9시 교민친선축구대회(축구협회 주최)
곳: Centenial Park 연락처: 752-6023 (권 성웅)

◆10일(토)상오10시 한국노년회 야유회
곳: Pen Gilley Farm
참고: 신청마감은 9일 하오4시까지 선착순 80명.

◆10일(토)정오 태권도인 야유회
곳: Downsview Dells Black Creak
연락처: 244-5824 (한 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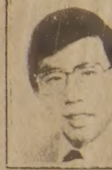
◆10일(토)하오8시 경희대동문 정기총회
곳: Choi's Restaurant (Kennedy×Eglinton E)
연락처: 532-2377 (Mrs. 최)

◆11일(일)상오11시 제2회 쿨링턴호텔 골프대회
곳: Fire Fighter Green Golf Club
연락처: 535-9541 (김 영규)

◆11일(일)하오5시 실협 정기이사회
곳: 김태진 이사장댁 연락처: 244-5124
(36A St.George Blvd.,Weston, Ont)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3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하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Scotia Bank / ToryorkDr. / Weston Rd. / Finch AVE

정씨농장 채소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농장에서는 전국적인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교포여러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의 주식인 배추와 무우를저렴한 가격에 특별봉사 하고자 합니다.
소매가격 ●배추 16¢ (Lb당) 50Lb 1BOX에 $8.00
●무우 20¢ (Lb당) 50Lb 1Bag에 $10.00
일시 : 1982년7월7일부터~
판매장소 : 시내 각 식품점
RRI Wainfleet Ont, L0S 1V0
1-899-1154
정씨농장 주인 백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캐라반「서울관」문닫아

2만5천명 관람, 손·익은 "똔·똔"

지난 18일부터 8일간 계속된 캐라반재전이 26일 막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민족을 대표해서 토론토거주 44개민족문화전시제전에 참가한「서울관」도 이날밤 11시 문을 닫았다.

서울관을 운영한 토론토한인회 캐라반운영위원회는 밤12시 마지막 관람객이 나가자 지하실에서 간단한 폐막식을 갖고, 한식 마련에 수고한 조영호노년회장과 한국서 온 여성경제인연합회 3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대환캐라반위원장에 의하면 주로 캐네디안인 약2만5천명이 「서울관」을 다녀갔고, 한국음식및 토산품판매등에서 캐라반위원회가 올린 총수익은 1만7천달러. 매주 빈병박스만도 무려 74개가 넘었다.

한인회및 캐라반위원회 임원 부인등 자진봉사자도 많았으나, 「서울관」 유지운영에 약1만7천달러를 소비, "똔·똔은 됐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서울관」을 위해 토론토영사관서 3천달러, 온타리오실업인협회서 소프트·드링크 225상자, 기타 한인업체서 쌀등을 지원했다.

베더스트지하철 건너편(블루어 바로 남쪽) 카톨릭·인퍼메이션센터에 자리잡은 「서울관」은 9일간 쇼시간마다 김용순무용연구소의 무용및 태권도를 교대로 보여주었다. 쇼시간마다 지하강당은 관람자로 가득차 우리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두가지 종목임을 증명했다.

여성경제인협회, 미도파선물센터, 거북이선물센터가 자개상, 담뱃대등 한국 민속품들을 전시, 판매했고, 본 토론토·한국일보사는 지난 1년간의 중요1면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시, 한국인 사회에 일간지가 있음을 과시했다.

미스코리아 진 함승화양이 이틀간 입구에서 입장객을 맞았다. (선 윤혜련양은 병으로 불참.)

여성경제인협회는 민속품 판매대중 1,200달러를 캐라반위원회에 기부했다고 위원회가 밝혔다.

도꾜관은 상2개 서울관은사양(?)

30일 로얄·욕 호텔서 열린 캐라반대회 시상식에서 라트비안족(소련서북부 발틱해안 변 거주, 소련영)을 대표한 리가(Riga)관이 최우수 파빌리온(Pavilion: 관)상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키에프(Kiev)관의 캐디·해라심척(22)양은 금년도 미스·캐라반으로 뽑혔다.

레온·코사 캐라반대회장은 9일간의 제전중 2백만명이 44개 민족관에 입장, 입장자는 작년보다 30~40%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우수 파빌리온부문서 일본을 대표한 도꾜관은 2위, 빌니우스(Vilnius=발틱해안변 리트아니아족 대표)관은 3위로 뽑혔다.

연예상은 키에프, 음식상은 노브고로드(Novgorod=소련대표), 외부장식은 도꾜, 내부장식상은 빌니우스관에 돌아갔다. 한민족을 대표한 서울관은 아무 상도 타지 못했다.

◆금년도 미스·캐라반 해라심척양. 그녀는 미스·키에프(Kiev=우크라이나 대표)였다.
〈사진은 토론토·선이 서〉

-dave chidley, su

동우회 가족들 야유회
통돼지로 구미 돋우며…

통돼지 잡기, 큰 경로잔치로 전통있는 토론토 동우회의 야유회겸 경로잔치가 지난 26일 써니부룩·파크에서 열렸다.

40여명의 회원과 할아버지, 할머니등 가족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박회민 목사(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담임)의 축도가 있었고 점심후 박옥선 시인 담당, 이웅전군(토론토대학생)의 기타를 곁들인 노래지도로 여흥을 시작했다.

오픈 청백팀 가르기, 폭댄스로부터 시작, 약 40명의 경로오락프로로 풍선게임·행운의 편지 집기("동","우","회"의 3자가 들어있는 편지를 집은 분에게 상품), 청백 양팀으로 나눈 회원단체게임등으로 약 두시간에 걸쳐 일동은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원영신 동우회장은 "배를 움켜잡고 하도 웃어서 디스크(허리병)에 걸릴 뻔한 이도 있었다"고 조크했다.

행사의 마무리는 우정을 북돋는 폭댄스로 마쳤으며, 양팀의 총점에 따라 한아름씩 상품이 안겨졌다. 동우회 특유의 통돼지 1마리가 등장, 굽는 냄새가 공원구석구석에 퍼져 피크닉나온 행락객들의 구미를 돋구었다.

이날 예정된 임시총회는 정족수(50명) 미달로 유회됐다.

모국 불우아동 도와
호남향우회서 송금

호남향우회(회장 장영대)는 모국의 불우아동들을 위해 온정의 꽃을 피웠다.

정신박약아 특수학교(광주 선명학교)와 작년 자매결연을 맺은 향우회(당시 회장 박주삼)는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송금, 학교측은 이 돈으로 희망의 상징인 「자매상」 동상을 교정에 세웠다.

80년에 세워진 호남지방유일의 정박아 특수교육기관인 선명학교에는 현재 134명의 재학생이 있다.

해마다 이 학교를 돕기로 한 향우회는 지난 4월에도 실명아의 개인수술비 300달러를 송금했었다.

◆선명학교뜰의「자매상」.

한국외교관 9명
베이루트 무사탈출

(서울2일=연합)이스라엘에 포위된 베이루트에 주재했던 한국 외교관및 가족 9명이 2일 무사히 귀국했다.

문창화 베이루트 주재대사와 부인 김석근씨등 일행은 한창식영사의 주도하에 로마를 거쳐 귀국했다. 이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에 의해 고립된 베이루트에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이성씨(38) 일가족 4명이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조오련
도버해협 횡단

(서울30일=연합)한국 수영계의 기린아 조오련선수와 4명의 트레이너가 영국 도버해협 횡단에 도전하기 위해 30일 런던으로 떠났다.

조오련은 1달가량 현지에서 훈련을 받은 후, 오는 8월15일 지금까지 도버해협횡단 신기록에 도전한다.

7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조선수는 80년8월 59,7Km의 대한해협을 1시간16분16초에 횡단했다.

대낮 하이·팍서 난폭한 강간

30일 낮 11시30분께 토론토 하이·팍에서 일광욕을 하던 23세의 여인이 흑인의 공격을 받고 숲속으로 끌려간 뒤 강간 당했다.

이날 흑인은 여인이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면서 끌고 갔는데 여러 산책객들은 여인의 비명을 듣고도 구해내지 않았다.

일부 산책객들은 부부싸움으로 착각, 돕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너무 놀라 정신에 이상을 일으킨 이 여인은 1일 입원중인 토론토 제너럴종합병원서 제정신을 찾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3명의 여인이 하이·파에서 강간당한 일이 있음을 토론토강간센터에 통고했다.

경찰은 대낮에, 비교적 산책객 또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하이팍에서 난폭한 강간사건이 일어난 점을 중시, 집중수사를 펴고 있다.

해방후 헤어진 형님 TV화면에
KBS 카브로스크지방 한인촌 특집

(서울1일=연합)헤어진지 37년된 큰 형님이 소련에 살고 있음이 TV화면을 통해 확인됐다.

유봉목(54)씨는 30일 3동생과 함께 KBS방송국에서 해방직후에 헤어진 큰형님 인목(64)씨의 얼굴을 확인, 울음을 터뜨렸다.

유씨는 29일밤 KBS의 "세계의 한국인"이란 프로의 "카바로스크(소련)의 한인들" 부분에서 큰 형님의 얼굴이 언뜻 보여 형제들과 함께 KBS방송국에서 녹화를 보고 재차 확인했다.

유씨 가족은 해방전까지 일본에 살다 한국으로 돌아 왔으나 이때 큰형님 인목씨는 또 다른 3형제와 함께 소련의 카바로스크시로 이주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시민인 강준식씨가 소련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카바로스크지방을 방문, 녹화한 것으로 인목씨는 TV인터뷰에서 "나는 3형제와 잘 살고 있고 아이들도 한국말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첫 개인전 호평에 고무
정동훈씨 제2회 도예전

도예가 정동훈씨와 조셉·파나치씨의 합동도예전이 오는 17일까지 2[illegible] 스트릿(Eglinton 북쪽)의 카페식 화랑 〈쉐·카푸신느〉에서 열린다.

두 사람의 도자기작품 60여점이 전시·판매되는 이번 전시회 개장시간은 주중 상오 11시부터 하오 11시까지이며 작품값은 대개 $100~300이다. 정씨는 지난달 토론토 킹·스트릿의 세타·멜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어 좋은 평을 들었다. 정씨는 6,7개월후 미국연수를 가기까지 도자기에 취미를 가진 교포들을 위해 도자기 개인교습을 갖는다. 연락처는 233-9534

◆정동훈 씨

〈제3회 한맘교육강좌〉①

한국인의 얼 〈3〉

유재신 (박사·토론토대학 교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사대적인 입장에서 관용을 통해 한 민족은 3국시대, 특히 통일 이래로 선린적 평화적인 정책을 지켜서 중국과 1,300년 교류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 소화해서 백제의 왕인, 아지귀와 불교의 고승·예술가들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의 초석을 놓는데 영향을 끼쳤다.

근대에와서 이퇴계의 신유학이 「명치유신」의 "교육칙어"에 영향을 주어 근대화의 지주가 됨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학생들, 특히 고구려 승강이나, 신라 원측, 그리고 원효나 의상등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고려의 승체관의 "천대사교의"는 중국에 불교를 역수출해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혜초같은 학자는 인도에 순례하고, "왕오 천축기"를 써서 인도 고대사 연구에 크게 공헌했다.

◆유재신 박사

통해 민중속에 이 얼이 흘렀다.

임진왜란을 백성이 단결하여, 승려까지 합쳐서 일본을 몰아내고, 19세기 동학란을 통해서 민중의 민주봉기… 삼일운동을 통해서 무교의(폭팔력), 기독교의 자유, 정의, 사랑(독립)의 정신과 도교의 무저항의 힘(음·양)이 합해서 민족독립운동의 거사를 일으키고…. 지금도 민중의 저력으로 민주화와 그 대화에 저력이되어서…

◇한국인의 독창적인 얼

경제성장에 공헌했다고

것이 많다.

특히 한국의 민화가 무교적 영향으로 신비적인 추상화로서, 피카소보다 백여년 앞섰다는 사실은 우리의 창작력의 저력을 말해준다.

우리는 대륙의 문화를 배우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창작적인 한국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교의 "중의 경리"의 윤리를 중요시하고, 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사상은 가족주의적인 권위주의 사상과 함께 우리의 얼을 지배해왔다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서 근대기독교는 교회와, 사립학교 교육과, YMCA나 기타 사회운동을 통해서 한국인의 근대화와 민주정신에 즉 정의, 자유, 평등에 기여 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한국인의 얼과 문화가 서로의 좋은점을 살려서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정진과 문화의 만남에서 어

한국인의 얼—진취성과 우아함
고구려의 얼, 신라의 문화

◇한국인의 양적인 얼

다음으로 한국인의 "양적"인 얼을 살펴보자.

우리 민족에게는 기마민족의 강력한 주체의식이 흐르고 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군의 침략을 고구려는 70년을 견디어냈고, 만주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당태종이 고전했으며, 고구려 양만춘장군이 쏜 화살에 당태종의 눈이 빠졌다고한다.

을지문덕이 당나라를 물리친 용감한 싸움-3국시대의 중국역사의 관심사는 고구려여서, 고구려는 고대중국을 상대로 힘을 견주는 나라였다. 수나라의 대망은 고구려에 원인이 있었다.

고구려의 고분의 벽화를 보면 용, 호랑이, 신비한 닭, 그리고 말을 달리며 활쏘는 기사, 태권도, 씨름하는 모습에서 힘을 상징하는 모습을 본다.

3국통일후 신라는 중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냈다. 이것은 화랑의 용감한 기상이었다. 고구려를 고려로 고친것은 왕건이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려는 주체의식을 가진 웅대한 꿈에서 시작했다.

특히 무속종교와 불교를

보여진다.

더나아가서 이 힘은 한국인의 독창성의 얼로 발전되어 갔다.

중국의 정치제도를 배우면서 화백 골품등의 신라의 옛 제도를 합해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힘-불교의 팔관회가 뿌리의 무속과 조화되어 제천적·한국적인 명절이 되었다.

석굴암의 불상에는 고구려의 기상과 신라의 온화한 모습에 합해서 중국에서 받아들인 불교미술을 신비스럽게 승화시켰다.

동양의 첫 천문대·첨성대와 세계 최초의 활자 발견(처음 활자로 15세기 Gutenbug 활자보다 200년 앞선 금속활자 발견), 고려자기의 우려한 신비의 예술, 신라의 금관등…

상감청자, 그리고 원효의 "화정론"철학-사랑안에서 자유를 논하는 그의 심오한 철학, 진솔의 선을 위주로 한 교종의 겸한 종합적 불교-세종대왕(1446)의 세계에서 우수한 언어 한글 창제, 그리고 최수운의 "인내천"사상을 기초로한 유·불·선 종합의 한국적 종교, 이퇴계의 "4단7정"의 세계수준의 유학과, 이율곡 "의"·중심의 한국적 신유학의 전설-세계에 자랑할 만한

떻게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과제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의 이민은 캐나다 복합문화 속에서 한국의 얼에 기초해서 서구정신의 좋은점을 조화하면서, 새 인간 형성을 하며-세계속에 한국의 얼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어떻게 이 문화를 알리는 동불이되어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시 된다.

모든 한국인 한인단체와 교회는 토요학교, 기타모임에서 이 일이 연구소개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서 동양학,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계속)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서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1일 북아일랜드 3:2 오스트리아 (예선탈락)
소련 1:0 벨지움 (예선탈락)
◉2일 브라질 3:1 알젠틴 (예선탈락)
TV중계되는 경기스케쥴(CBC-TV)
▲4일 북아일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 승자(정오-영어)
소련:폴랜드·벨지엄 승자(pm 11:15-불어)
▲5일 브라질:알젠틴·이태리의 승자(정오-영어)
스페인:서독·영국의 승자(pm 11:15-불어)
▲8일 준결승
B조 승자:D조 승자(정오, pm 11:15)
A조 승자:C조 승자(pm 2:30)
▲10일 3·4위전(pm 1:30)
▲11일 결승(pm 1:30)
8일 이후 준결승부터는 영·불어 방송 동시에 중계한다.

경동고등학교동창회

경동동창 여러분, 부디 가족 동반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야외에서 즐기십시다!

일 시 : 7월10일(토)
장 소 : GLEN HAFFY 컨서베이숀파 (FORESTVIEW PARK)

연락처 : 장진무 494－5308
백운산 624－3849
이춘수 536－2243

경동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장진무

중앙대학교 야유회

본교 동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기야유회를 갖고저 하오니 가족동반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7월17일(토) 오전10시반
장 소 : MORNINGSIDE PARK
연락처 : 김동천 635－1334

중앙대학교 동문회

제8회
정기총회에관한공고

경희동문에서는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가족동반 많은 동문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7월10일 저녁 8시
★장 소: Choi's Restaurant (Kennedy + Eglinton E.)
★참 석: 경희동문 전원 부부동반
★비 용: 동문회에서 제공

◉연락처: 532-2377 Mrs. 최
924-5155 Mr. 박
278-9700 Mr. 이

경희동문회장 이정호

제6회 연세·고려대학
합동야유회

전통의 명문 고려·연세대학 교우회의 합동야유회를 아래와 같이개최하오니 가족과 함께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7월17일(토) 오전10시30분
장 소 : MORNING SIDE PARK (HWY 401 E.로 가다가 Morningside Ave로 빠져 Ellesmere Rd를 넘어 오른쪽에 위치함)
점 심 : 각자지참
연락처 : 연대 : 총무 조남수(298－4480)
고대 : 총무 정필주(661－1819)

연세대학교 동문회장 박남희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서준경

중국계 여학생들 기염

졸업성적 1·2·3등 차지

두뇌로는 에바·라우(Eva Law)양이 최고인듯. 아니 중국계 여자들이 최고?

모낙·팍고교(Monarch Park Collegiate) 졸업생인 라우는 토론토의 최고 「온타리오 학자」(Ontario Scholar)가 됐다. 평균성적 97.66%. 「온타리오·스칼라(학자)」 칭호를 얻으려면 13학년 학생으로서 6개과목 졸업성적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3년간 모낙·팍 학교에 다닌 라우양은 올9월 토론토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할 예정.

2번째 우수 「온타리오 학자」는 역시 중국계인 메이·와·투이양(팍데일·칼레지에이트)으로 97.6%, 3위 역시 중국계(?) 수잔·탬(센트럴·콤머스). 탬양은 알란·레인(로렌스·파 칼레지에이트)과 동점, 97.3%였다.

중국계 여학생 3명이 3위까지를 차지한 점이 특이하다.

우수한 교포자녀들이 다 어디갔는지?

◆최고「스칼라」라우양.

한·가 참전용사 파티

6.25 32돌 맞아

6·25동란 32돌을 맞아 지난 27일 캐나다한국참전용사회(회장 M.Hyland)는 토론토의 해병전우회(회장 남상현) 회원들을 공군기지(다운스뷰)에 초청, 옛 전우의 우정을 돈독히 했다.

100여명 양국용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이상훈 총영사는 "한·카 양국의 유대관계가 이런 기회에 더 두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서정길사범, 정연수사범 문하생들의 태권도 시범도 있었다.

해병전우회는 담례로 오는 10일(토) 페티코트·크릭·컨서베이션 공원에서 참전용 사회원들을 초청, 합동야유회를 갖기로 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9>

金聖鍾 작

일찌기 이렇게 무서운 전화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같은 벌써 떨어나버리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흐릿한 모습으로 보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한다.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그래지지가 않았다.

다른때같으면 한번의 외출하기위해 한 시간정도 거울앞에 앉아 화장을하건만 지금은 그럴마음이 조금도없었다. 손에 잡히는대로 아무거나 입고 60만원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왔다. 차는 남편이 회사로 타고나갔다. 차좀 보내달라면 즉시 보내주겠지만 그러고 싶지않았다. 차가있다해도 지금은 다른 차를 이용해야한다.

을씨년스럽게 비까지 내리고있다. 자신이 갑자기 불행하고 비참하게 변해버린 느낌이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환히 알고 있는셈이다. 택시가 달리고 있는동안 그녀는 겁먹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W호텔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그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 앞에 서면 누구나가 위축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사람들은 터무니 없이 위세를 부린다. 현대 도시문명의 미아들이 저어야하는 어쩔수 없는 모순이자 위선이다. 박봉의 샐러리맨이 코피 두잔에 2천원을 날려버린다. 튀기같이 생긴 여자의 허죠부라진 노래소리들으며 주스타도마실라치면4천원이 날아가버린다. 현대문명의 이기를 마음껏누릴수있는 처지가 되기에는 주머니가 너무 빈약하다. "너같은 놈은 이런데 와서는 안돼." 그러나 그는 허세를 부리며 꽉꽉 찾아온다. 인생의 예정된 코스이기나 한것처럼.

冷血 ⑲

마른침을 삼키며 그녀는 15호室 앞에…

朴 男 그림

문자는 재빨리 주위를두리번거리며 호텔로비를 걸어갔다. 그전에는 기세좋게 다녔건만 지금은 그럴수가 없었다.

남편이라도 만날 것같은 예감에 똑바로 엘리베이터쪽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다. 남편이 근무하는 R상사는 바로 길건너 오른쪽으로 50미터를 떨어진 곳에 있었다. 더구나 남편은 W호텔을 잘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로비에 앉아 주위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한참 그렇게 앉아있다가 아는 얼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몸을 일으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느닷없이 남편과 부딪치면 뭐라고 하지. "어머, 당신." 그때는 환하게 웃어야한다. "당신 웬 일이야?" 남편은 의아한듯 물을것이다.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려고요. 거기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안심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함께 갈까?" "아이, 안돼요." 곱게 눈을 흘기고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그녀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25층 버튼을 누른 다음 상승하는 숫자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25층 불이 꺼지면서 문이 열렸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나서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한층으로 고요했다.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있어서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불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다음 15호실을 찾아 복도를 걸어갔다. 마침내 그녀는 15호실 앞에 섰다. 강제로 끌려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슴이 마구 뛰면서 호흡이 거칠어져왔다. 돌아설까. 그럴수는 없다. 다시는 전화질하지 못하게 막아야한다. 악마 같은 놈."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버튼을 눌렀다. 차임벨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몇초지도 않고 문이 열렸다.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녀는 안으로 얼른 들어섰다.

"문을 닫아요."

그녀는 문을 밀었다. 문이 닫히면서 자동적으로 문이 잠겼다.

빌리·진·킹 4강 진출

윔블돈테니스, 오스틴 눌러

(윔블돈=영국)38세의 노장 빌리·진·킹이 딸같은 19세의 소녀 트레이시·오스틴을 물리치고 윔블돈 테니스 4강에 진출했다.

킹여사는 30일 윔블돈구장 센터코트에서 열린 여자단식 준준결승에서 오스틴에게 3-6, 6-4, 6-2로 승리, 놀랍게도 4강에 진출, 1일 크리스·에버트와 만나게 됐다.

킹여사는 이제까지 윔블돈 여자단식서 6차례 우승했다. 킹여사는 지난 5월 독일오픈에서는 한국의 이덕희 선수에게 2:1로 졌었다. 이양은 윔블돈 2회전에서 미국의 앙드레·예거에 2:1로 져 탈락했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예상대로 존·맥켄로, 지미·코너스가 준결승에 진출한 반면 3번시드 바이타스·제리타이투스(미국)은 호주의 마크·에드몬슨에게 3:1로 패배.

〈독자의 광장〉

무슨 말을 할까?

김성헌 (Weston ONT)

말하기 좋다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내가 남의 말하면, 남도 내말 하니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하노라.

이것은 지난 시대의 한 선인의 시조이다.

오늘과 같은 자기표현지상주의시대에 남의말이 무서워 말안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미덕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옴으로 양으로 자기표현에 제한을받고 있는 우리 이민자의 생활에 있어, 말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엔 정말 말도 많다. 동창의 모임에도, 교회에도, 그 어떤 이름의 모임과 행사에도 말의 향연이 푸짐하다. 열심히 목에 힘주어 쏟아내는 말의 홍수들…

그러다간 말에 걸려 싸우기도 하고, 말에취해 비틀거리고, 비꼭대고, 눈흘기며 돌아서기도 한다.

무언가 마음에 꽉 찼으니, 또한 쏟아놓아야 하는 것은 먹었으니 배설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긍정하면서도 한 가닥의 아쉬움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절제를 가져주었으면 하는것이다. 배설이 본능적인 것이라고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은 짐승의 일이다. 인간이라면 정한 장소에 남 안보이게 처리할 줄 알아야 하듯, 말에 있어서도 긍지를 가진 인간으로서의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다. 자기것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 전전한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체제에 사는 우리에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것들이 우리가 속한 이웃과 사회를 전전하게하고, 화평케하는 것만이 참다운 말이 될 수 있고, 복된 것이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광고주를 찾읍니다! 연락처 : 533-2361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램돈스포츠 598-3732

三國志 409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해병전우회및 한국전참전용사 합동야유회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전 한국동란에 참전하여 우리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불고기와 김치를 대접하며 전우애를 돈독히 하는 합동야유회를 갖게 되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7월10일(토) 오전11시
장 소 : PETTICOURT CREEK CONSERVATION PARK
참 조 : 불갈비와 음료수는 본회에서 준비함.
우천시는 다음주 동일장소·시간으로 연기함.

연락처 :
회 장 : 남상현(424-3035)
부회장 : 최장복(439-9531)
총 무 : 김명정(652-0370)
부총무 : 송기선(621-2059)
재 무 : 이희용(827-0622)
고 문 : 고종욱(863-0415) 정운학(444-9515) 박동열(679-7390) 홍도익(691-9414)
섭외 : 김성배(699-6583)
체육 : 이인모(691-3666)
진행 : 하주용(769-5956)
오락 : 서동헌(457-4759)
감사 : 박찬도(924-5155)

해병전우회 회장 남 상 현

호남향우 야유회

향우 여러분!
어려운 이민생활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호남향우회에서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향우 여러분 가족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갖고자 하오니 온 가족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7월17일(토) 오전10시
(우천시는 다음주 토요일로 연기)
장소 : BOYD CONSERVATION AREA
(점심은 각자 지참. 단, 음료수는 향우회에서 제공)
전화문의 : 장영대(651-8835) 송남성(271-0166)
이정석(535-2143)

호남향우회 회장 장 영 대

個人소득세 引下키로

住宅수요자資金 대폭확대

私債貸金業 유도 신용金庫설립 自由化

정부는 6·28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私債시장을 양성화하기위해 私金融전담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을 자유화, 私債자금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여 제도금융권에서 대금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지금까지 보류상태에 있던 貸金業法을 제정, 상호신용금고를 매개로 하지않은 사채자금은 강력히 단속하고 특히 지금까지 분리과세하던 私債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실수요자가 신축주택을 매입할경우 주택수요자금융을 대폭확대공급키로하는 한편 法人税의 인하에 맞추어 개인사업소득세및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도 인하키로했다. 그대신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을 확대, 고소득층, 불노소득층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과세키로했다.

29일 관계당국에의하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주택경기를 자극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및 등록세는 이미 5·18조치때 대폭인하했기때문에 추가인하는 할수없고 그대신 물론없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주택수요자금융을 대폭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주택수요자금융을 확보, 가구당 융자액을 현재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늘리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法人税率이 대폭인하됨에따라 형평을 유지하기위해 개인 사업소득세도 약간 인하하고 근로소득세는 인적공제의 확대및 최고세율의 인하등을 검토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세율인하에 따라 税收가 감소할것에 대비, 내년도 예산은 초긴축예산을 편성, 금년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내금리가 외국금리의 절반수준(부대비용포함할경우)으로 떨어짐에따라 국내기업들이 차관을 기피하고 이에따라 외貸부족현상이 나타날것에 대비,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단기무역신용은 현수준을 유지하도록하고 차관도입을 권장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규제대상이되어온 現金借款도입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①단기무역신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은행창구규제를 통해 원화수입금융을 일체해주지않고 ②외국산기자재를 도입할경우는 은행에서 외화매각을 하지않는 대신 借款으로 도입토록하며 ③현금차관도입을 자유화함과아울러 차관 원리금상환을 위한 국내금융지원을 금지하고 그대신 현금차관으로 상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리인하에따라 은행대출수요가 크게늘것에 대비, 지금까지의 간접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자금의 용도별로 여신한도를 규제,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별 직접 규제도 병행키로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산기계구매자금을 무제한지원해주고 전기요금의 인하및 모든 택시의 LPG화등을 검토하고 있다.

景氣부양 後續작업

- 勤所税人的공제 인상
- 양도세緩和고려 안해
- 住宅융자 천5백만원
- 電氣料도 곧내리기로
- 모든택시를 LPG化
- 現金차관 門戶등개방
- 綜所税면제대상 확대

수출金融 사후관리 폐지를 검토

정부는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우대금리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금융에 대한 사후관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9일 관계당국에의하면 6·28 경제대책에 따라 수출지원금융등 모든 은행대출금리가 일률적으로 10%로 통일되고 금리간의 격차가 없어짐에따라 취해지는것이다.

종전에는 우대금리 (11%)가 적용되는 수출금융을 지원받은 수출업체들이 일반금리와의 격차를 이용, 유용하는 사례가 많아 수출이행여부를 감독하는등 사후관리를 해왔다.

정부는 수출금융에대한 사후관리를 폐지하면서 일별로 실시하던 수출이행여부의 조사업무도 없애기로 했는데 이에 수출업체와 외국환은행들은 이에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輸出절차 간소화 하라

全대통령 "機械類 해외시장 개척에 外交지원"

◇全 대통령이 慶南北의 旱害지역을 시찰,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昌原=尹國炳기자】全斗煥 대통령은 29일『競爭國보다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부대비용이 많아서는 극심한 수출경쟁에서 이길수없다』고 지적하고『수출有關기관은 실효성없는 독려에 그치지말고 불필요한 절차의 大幅폐지등 실질적으로 業界의 요망에 부응할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昌原공업단지안에 있는 韓·伯창원직업훈련원에서 貿易振興月例회의를 주재, 이같이 강조하고『기계공업진흥을 위해 機械類생산기업도 국내시장에서 過當경쟁을 지양하고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우리가 앞으로 5~6년안에 국민총생산액1천억달러, 수출5백억달러線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계류수출이 2백억달러를 훨씬넘어야한다』고 말하고『이것은 연간 5천억달러에 이르는세계機械類시장에서 현재 1%도안되는 우리의 기계류수출 占有率을 3%線으로 끌어올리는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우리가 해외 기계 시장에서 선진국들과경쟁해서 이겨나가려면 기술능력과 자금능력 2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이를 위해 기업은 제일차적으로 외국과공동으로라도 受注능력을 확보하는데 집중노력해야 할것이며 정부도 기업의 受注경쟁에 외교적인 지원을 비롯한 모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業界대표들의 애로를 듣고『勞使분규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것은 가장 나쁜방법으로 企業主와 종업원들이 한가족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해 나가면 어려운 勞使紛糾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한뒤 특히『남의 회사에서 훈련시킨요원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며 정부도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장 새마을운동에 공이 큰 三洋光學공장대표 洪俊鏞씨에게 새마을훈장 協同章을주었다.

한편 全대통령은 회의가끝난뒤 李起一원장의안내로 韓·伯昌原직업훈련원을 둘러보고 三星중공업 식당에서 工團내 기업관계자및 모범근로자등 1백50여명과 점심을 같이하며 환담했다.

"重化學중심 産業구조 高度化

기계공업 育成은 生存權과 직결"

全대통령, 한국重工業준공 致辭

【昌原】全斗煥 대통령은 29일『우리가 高度산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重化學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高度化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지적,『우리나라와 같이 賦存자원이 빈약하고 국토에비해 인구가 많은 실정에서는 기계공업의 육성이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韓國重工業 昌原 종합기계공장 竣工式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기계공업은 방위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기때문에 北韓공산집단의 끊임없는 武力도발위협에 직면해있는 우리로서는 생존권화 보와도 직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發電설비와 각종 플랜트건설에는 최첨단의 기술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선진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축적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하고『또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개척에 힘써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斗煥 대통령은 慶南旱害지역을돌아보고 昌原에서 있은 무역진흥月例회의및 한국중공업昌原공장준공식에 참석한뒤 29일 하오 歸京했다.

"農地稅率도 引下토록

民正, 내년 긴축豫算편성 불가피"

정부는 6·28景氣활성화대책의後續조치로 곧 소득세및 특별소비세의 稅率도 引下시키고 私債를 제도금융으로흡수하는 방안을마련, 民正黨에 통보한것으로 알려졌다.

陳懿鍾 民正黨정책위의장은 29일 기업에대한 法人稅가 현행33~38%에서 20%로 인하됨에따라 소득세및 農地稅率도 이에맞춰 引下조정작업을 벌이고있는것으로 안다고말했다.

그는 또『私債의양성화를 위해 단계적조치를 강구키로하고 우선無記名예금및 株式거래에 差等稅率을 적용하고 賃貸業法등을 입법조치하며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陳의장은 이같은 稅法조정등으로 내년도 稅收가 크게 감소될것이며 이에따라 재정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民正黨은 앞으로 내년도예산에대한 예비심사에서 이점을충분히 고려하겠다고말했다.

朴鉉兌정책조정실장도『내년도 稅收의 대폭적인감소가 예상돼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할것 같다』며『내년 예산안 조정에서는 新規사업은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말했다.

한편 民正黨豫決委는 29일 법무부와 법제처소관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李外務·헤이그會談

韓美 貿易문제·스토슬次官과 논의

【워싱턴29日=聯】 미국무성의 초청으로 지난26일 워싱턴에 도착한 李範錫외무장관은 갑작스런 사임에도 불구하고 29일 예정대로 헤이그前국무장관과 회담할 것이라고 美국무성이 28일밝혔다.

그러나 국무성소식통들은 李·헤이그회담에서는 주로 의례적인 얘기가 오갈것이며 실질적인 문제들은 30일 있을 李장관과 월터·스토슬국무차관간의 오찬회담에서 토의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29일 백악관을예방, 조지·부시부통령을 만날 예정이며 30일상오에는국방성을 방문, 프랭크·칼루치 국방차관과 회담한뒤 윌리엄·케이시 美중앙정보국(CIA)국장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질예정이다.

李장관은 또 이날 에드워드·더윈스키 하원의원(共·일리노이)과 만나고 이어 30일하오 레이건 대통령과친밀한 사이인 폴·렉설트상원의원(共·네바다)과도 만날 예정이며 30일밤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저에서 베풀어질 리셉션에서도 많은의회지도자들및 정부관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李장관은 레이건행정부 고위관리들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무역, 안보지원등을 포함한 양국간의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할예정이다.

社債발행취소 續出

會社債금리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던 기업들의 발행취소가줄을 이었다.

29일 증권계에 따르면 28일 회사채를 발행할 회사는 金星전기등 모두 6개社에 1백30억9천만원이었으나 이날부터 사채발행이자율이 4·6~4·7%인하됨에 따라 동방동양을 제외한 5개사가 회사채발행을 취소시켰다.

유일하게 동방동양만이 예정대로 年利16·5%의 발행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會社債금리 인수협정에 따르면 유가증권 발행금리가 변경되더라도 0·5%포인트 내외에서 변경될때에는 발행을 취소할 수 없으나 0·5%이상 이거나 이하로 크게 떨어졌을 때에는 발행회사가 발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아랍圈·PLO서 요청하면

北傀, 레바논派兵 용의

北傀는 29일정오 이스라엘의 레바논侵攻사태와 관련, 소위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팔레스타인과 아랍圈이 요청한다면 北傀軍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날 낮 平壤및 中央방송을 통해 발표된 이 성명에서『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이 전적으로 美帝의 비호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격렬한 對美비난을 퍼붓는가운데 PLO및 아랍圈이 요구한다면 北傀軍『지원병』을포함한 모든형태의 지지성원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서울=聯】

韓英洙의원 拘束

간통혐의로

서울지검형사1부는 29일 民韓黨소속국회의원 韓英洙씨(47·충남瑞山·唐津지구)를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韓씨는 지난2월15일 남편이있는 가정부인 朴인숙씨(35)와 서울 남서울관광호텔에서 처음 관계를 맺은 이후 지금까지 남서울관광호텔 유성장여관 삼정관광호텔등 서울시내 3군데의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20여차례에 걸쳐 불륜행위를 가져온 혐의다.

검찰은 28일 상오朴씨 남편의 고소장을접수, 이날하오 3시께 서울江南區驛三洞 삼정관광호텔에서 동숙현장을 덮쳐 韓씨와 朴씨를 연행, 조사해 오다 29일 두사람을 모두구속했다.

◇韓英洙의원

法務長官, 背景설명

裵命仁법무장관은 29일낮 국회의사당 民韓黨총재실로 柳致松총재를 방문, 韓英洙의원을 구속하게된 경위와 배경에관해 설명했으며 이에앞서 林鍾基民韓黨총무에게 韓의원의 구속사실을 공식통고

尹起大씨 資格정지 民韓黨務회의 議決

民韓黨은 29일상오 당무회의를열고 최근 폭행사건에관련된 尹起大의원에대해 중앙黨紀委결정대로 2개월간 資格停止키로 의결했다.

民韓, 辯護士선임 對策협의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등 간부들은 29일상오 韓英洙의원이 간통혐의로 구속된데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한편 金珍培대변인은 韓의원이 姦通혐의로 구속된데대해『비록 국회가 폐회중이라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현역의원을 구속한 것은 이해할수없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우리黨은 우선 이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추궁할것이며 이에따라 黨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民韓黨은 黨소속 韓英洙의원이 간통혐의로 구속된데대해 29일 상오에걸쳐 柳致松총재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했다.

民韓黨은 이날 韓의원의 담당변호인으로 黨內法曹人출신인 睦堯相·朴炳一의원을 선임, 30일상오중 변호인선임계를 法院에 제출키로했다.

政府, 國會에 통보

정부는 국회법 29조에따라 韓英洙의원(民韓)이 간통혐의로 구속됐음을 29일 丁來赫국회의장에게 통고했다.

한편 丁來赫국회의장과 李鍾贊民正·林民韓총무는 이날 낮 韓의원구속에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社會漫評

가뭄끝에 洪水지는거 아닌가?!…

地平線

올챙이를 깜깜한 방에 30분이상 놓아두면 피부색깔이 하얗게 달라진다。진화생리학자들이 조사한결과 놀랍게도 개구리엔 눈이 두개가 아니라 세개있는 것이 밝혀졌고 그중 제3의 눈이 피부색깔을 조절하는것으로 확인되었다。▼그뿐아니다。사람을 비롯한 모든동물에도 제3의 눈이 있는것이 알려졌다。이 제3의 눈(上生體=松果腺)은 退化돼서 사람의 경우 0·1~0·2g무게밖에 안된다。뇌속 각이 있지만 瞳孔을 밤낮의 광선받기에따라 넓혔다 좁혔다하는 기능이외에 색의 변화감지、腦下垂體호르몬 분비등과 큰 관계가 있다한다。말하자면 광선이 적은곳에서 몇십세대 살게되면 눈동자가 커지고 피부가 하얗게 변화할지도 모른다는얘기다。▼낮밤이 바뀐 생활이계속되면 수십만년에걸쳐 진화해온 인체가 다시 변화를 일으킬수 있다는 가설이 나온것이다。▼통금이 없어지면서 우리생활에도 많은 변화가오고있다。밤늦게까지 약주 마시는 사람이늘고、심야극장이성황이다。야간 관광버스·야간열차가많아지고 그에다 요즘은 심야등반까지 유행이라고한다。사람은 워낙밤눈이어두운데 혹시나 엄청난사고라도생기면어쩔까 염려스럽다。신비로운 달빛아래 홀로걷거나 데이트를즐기는 낭만도 좋지만 밤등산은 아무래도 걱정이앞선다。사람몸에는 독특한 리듬이 있는데다 특수훈련이 아닌이상 야밤의 암벽타기、호젓한 산행로를 나이든부모들이 근심안할수없다。▼돌부리에 채일수도있고 우묵한 곳에 발을헛디딜수도 있다。지난일요일 牛耳산장에 들른 등산객만 4백명이넘어 헤드랜턴이 반딧불 춤추듯했다고하니 밤등산이 얼마나 성행하고있는가 알만하다。밤바위를타는 드릴、밤산의 매력등 젊은이들이 찾는이유를 알면서도 조바심이 나는것은 사고위험때문만이 아니다。남녀간의탈선도생길지모른다。두더지나深海에사는물고기또는 고양이가 아닌이상 밤눈이어두운사람이 깜깜절벽에서무슨낭만을그리길수있겠는가라고 심야등산을 반대하는 부모들도 많다。▼밤노동 1시간이 낮의두시간 노동보다 더힘든 까닭은 누구나 아는일이다。남이잠잘때 잠자고 남이일어나일할때 일하는것이 건강의 지름길임은 더 말할필요가 없다。생활이 발달할수록 밤생문화도 요란해지게 마련이지만 마음이 안놓이는 심야등산만은 재고해야될것의 하나일것 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 감사말씀 ※

본회 82년도 야유회를 예정대로 회원 여러분의 물심양면 적극적인 협조와 음식물 준비등 내조를 아끼지 않은 부인들의 수고로 잘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찬조금과 상품들을 희사하신 회원들께 우선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현금찬조 (무순)		상품회사 (무순)	
김대경	$ 50	구진모	$ 100상당(선그라스)
이완식	$ 30	이창복	$ 400상당(상품및 어린이용과자)
변장업	$ 30	박병원	$ 100(수소탱크RENTAL)
송중구	$ 20	박광철	$ 200상당(라디오)
고성호	$ 40	공재웅	$ 200상당(전기벽시계, 부인용면도기)
이호석	$ 10		
이영만	$ 20	곽정열	$ 200상당(전자시계·화재경보기)
신우원	$ 50	김용기	$ 200상당(여자용헤어드라이)
김학종	$ 100	김대경	$ 80상당(조화)
하소영	$ 200	원영신	$ 300상당(갈비·김치·주부식)
호민식	$ 200	박진근	$ 200상당(햄버거)
이건태	$ 200	김남용	$ 150상당(통돼지)
차인규	$ 100	김진현	$ 150상당(팝·상품)
배기덕	$ 200		
김대현	$ 200		
장순채	$ 100		
고광남	$ 200		
계 $1,750.00			

*공재웅 스테레오음악제공
*박옥선여사 오락지도

1982년 6월 28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우회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 분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 각종의 리스팅 —

◉Variety Store($59,000): 주매상 $6,000선. 이층에 살림집, 건물과 대지도 함께 매매가능.
◉Hamburger Shop($35,900): 주매상 $1,800선. 미시사가 요지.
◉Tuck Shop($29,900): 주매상 $2,500. 미시사가.
◉Donuts & Video($59,900): 40석. 20대 Video 라이센스
◉Card & Gift($59,000): 짧은시간, 편한일, 다운타운.
◉Restaurant($119,000): 85석. L.L.B.O주차장. 건물매매 가능.
◉Apartment($1,290,000): 52세대. 7년.
◉Investment Card($499,000): 100에이커. 전망좋음.
◉Gas Station($299,000): 2·4에이커 대지와 살림집 포함.
◉House($189,000): 단층, West End, Double Gar.

'출발에서 도착까지.'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IATA 최 동 주 R)293-9970

PLO, 레바논撤收 제의

하비브特使통해 이스라엘에 傳達

◇이스라엘 反戰데모 약50명의 이스라엘反對데모대원이 27일 예루살렘에서 각의가 열리고있는동안 경찰의 저지선뒤에서 아리엘·샤론국방상의 사임을 촉구하거나 레바논침공에 항의하는 깃발과 피킷을 들고 데모를하고있다. 【텔아비브28일AP전송=聯合】

일부武器 보유등 조건

輸送船 알렉산드리아 出港說

【베이루트28日UPI聯=聯合】이스라엘軍의 베이루트공략을 막으려는 협상은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28일밤 레바논내 팔레스타인게릴라세력을 레바논으로부터 철수시키겠다는 제안을 이스라엘에 제시한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베이루트의 외교 소식통들은 PLO측의 이같은 제의가 엘리아스·사르키스 레바논 대통령을통해 하비브美중동특사에게 전달됐으며 하비브특사는 이를 다시 이스라엘당국에 전달할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로써『평화적 해결의 순간이 도래한것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하비브 美특사는 이날 레바논에 본부를 둔 일부 팔레스타인 게릴라부대를 레바논 정규군에 편입시키고 여타 팔레스타인 전사들을 제3의 장소에 再배치하겠다는 PLO측의 제안을 검토했다. 레바논국영 베이루트방송은 PLO측의 이제의가 아라파트 의장의 재가를 받은것으로 하비브 특사가 이날 사르키스 레바논 대통령 및 체피크·와잔 수상과의3자회담에서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방송에 따르면 레바논정부의 한고위관리는 이PLO측 제의가▲팔레스타인 전사 1~2개여단을 레바논정규군에 편입하고▲西베이루트에 갇힌 약6천명의 잔여 팔레스타인 게릴라세력을 다른 장소에『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레바논정부의 고위소식통들은 PLO가 레바논으로부터 그들병력을철수하는 전제조건으로▲이스라엘이 베이루트외곽 5㎞지점으로 철수할것▲팔레스타인의 일부무기보유▲美蘇양국이 팔레스타인병력의 안전통과를 보장할것등 3가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또 5척의 선박이 27일 알렉산드리아를 출항했다고 전하면서 이선박들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철수를위해 베이루트로 향하고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反越캄聯政에 準軍援 제의

【싱가포르28日UPI聯=聯合】최근 구성된 反베트남캄보디아聯政의 무기구입부를띠고 싱가포르를 방문한 노로돔·시아누크前캄보디아국가주석은 28일 싱가포르가 이미 反베트남聯政에『準군사원조』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反베트남聯政의 대통령인 그는 이날 李光耀수상을비롯 싱가포르고위관리들과의 회담을 끝낸뒤 가진기자회견에서『싱가포르의 원조는 非군사적성격을 띨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는 싱가포르가 현재 절실히 필요한 지뢰탐지기를 비롯 非무기류의 장비를 공급해줄것을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軍事실험本格개시

콜럼비아號 "第3段階서 이상"

【케이프 카내벌(美플로리다州) 28日UPI AP=聯合】제4차 마지막 시험비행에 나선 美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는 발사를제외한 28일 순조로운 궤도선회비행을 계속하면서 극비군사실험을 비롯한 각종군사실험에 들어갔다.

그러나 퀜·매팅리기장, 헨리·하츠필드부기장등 두우주인들은 극비군사실험을 수행하는도중『제3단계에서 이상이 생겼다』고 말해 美국방성이 추진하고있는 군사실험중 한가지가 제대로 실시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날 하오5시55분(한국시간) 잠에서 깨어난 두우주인들은휴스턴의美항공우주국(NASA)관제소와캘리포니아에 설치된 특별군사관제센터와 교신을 유지하면서 각종군사실험을 시작했다.

미국방성은 이 실험내용을 극비에 붙이고 있으나 적미사일과 우주선을 탐지하는 감지기와 기상관제소의 통제를 받지않고도 방어용위성의 우주항행을 가능케하는 기기의 성능실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中共, 下部조직 大肅淸임박

3천9백만명 資格審査 끝내

【홍콩28日=聯合】中共黨은 오는7월1일 창당61주년을맞아 전국의 2백만이상의 당기초조직에서 일하고있는 3천9백만명이 자격심사를 끝내고 이들기초조직에대한 전면적인「숙청작업」을 선언할것이라고 홍콩의 일부신문들이 28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중공당 중앙조직부가 소집한 기초조직의 숙청작업 마무리 공작을위한 좌담회에는 雲南·北京및上海등 11개省·市의 대표들이 참가했다고 大公報·明報및新晩報등이 전했다.

이 좌담회는 숙청대상으로는『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하되 신중을기해▲文化革命때 잘못을 범한 자와 文革후 잘못을 범한자▲부정분위기를 조작한자와 경제사범▲단순히 평소의 생활방식에서 잘못을 저지른자와 부패 타락한자를 엄격히 구별하여 숙청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들은 中共黨員의 45%가 文革기간중에 입당했으며 이들의 대부분 현재 당기초조직의 지도자로 성장해 4개항 현대화의 추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長距離미사일 대폭 감축등

제네바 美蘇군축회담 개막

【제네바28日頭=聯合】美蘇양국은 29일 제네바에서 전략무기감축회담(START)을 열고 핵무기 상호 대폭감축을 모색하는 협상을 시작했다.

美蘇관계자들은 양국정부가 장거리미사일에관한 이번 협상에서 대폭적인 감축에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기본입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선 지상및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탄두를현재의 7천5백개에서 5천개로 감축하는한편 장거리미사일이나 전략핵폭격기등 핵무기운반체제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약2천4백基에 달하고있는 미소양국의 대륙간탄도탄보유수를 각각 8백50基로 제한할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핵탄두운반수단의 70%가 지상발사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으나 미국은 불과 20%만이 지상에배치된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잠수함 발사미사일등 비지상발사미사일의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은 이번 START회담기간중에는 핵무기배치를 동결하자고 제의한바있으나 미국은 이같은 제안이 소련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바있다.

◇레이건의 헤어스타일 레이건美 대통령이 최근 머리모양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좌측은 27일에 찍은 사진으로 머리가 약간 이마위로 내려와 있으며 우측은 23일 찍은 것으로 머리가 위쪽으로 빗어 올려져 있다. 【워싱턴28日 AP電送=聯合】

파하드王의 사우디 조용한 改革바람

諮問의회구성·法정비 추진

對美의존外交 탈피도 모색

◇파하드國王 ◇압둘라황태자

할리드王의 急逝와 파하드王의 王權승계를 치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겉모습은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내체제의 결속과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 이란·이라크분쟁등 내외의 難題가 쌓여있다.

파하드왕—압둘라황태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선 오랫동안 숙제로남아있던 諮問의회설립과 법규의 정비등 내정의 개혁을 서두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한 압둘·아지즈초대국왕은 각지방의 부족장들과 혈연을 맺어 현재 사우디왕족은 4천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약3백명의 왕자들이 국가보안군, 국군, 정부, 州지사등 요직에 앉아 王權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약1만명에 달하는 우라마(回敎지도자)들이 또 하나의 큰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국가에 관한 중요사항은 왕족, 각부족장, 종교지도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또 왕족이 일반시민과 직접만나 불평불만을듣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종의 직접민주제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업화등 국가건설계획이 진행됨에따라 중산층이 늘고, 西歐각국의 선진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계층이 성장함에따라 국가의 실권이 왕족과 일부고급관료에게 독점되는데대한 불만의 소리도 차츰 커져왔다.

이때문에 사우디정부는 80년초 나에프內相을포함한 각료4명, 우라마2명, 종교재판관2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통치기구의 조직화, 국가및각州諮問議會설립, 사실상의 헌법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슬람法의 정비등을 추진해왔다. 사우디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문의회의 성격이 어떤것이 될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국가가 선출하는 종교지도자, 부족장, 지식인, 각계 전문가대표로 구성될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의 실권은 왕족이 계속 장악하되 정책결정에참여할수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차츰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각 세력의 불만을 해소하는 하나의 타협책으로 삼자는 속셈이다.

이런내정개혁의 여러 측면은할리드王통치때부터 親西方·진보노선을 걸어온 파하드王에의해 추진돼 왔다.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공업화와 사회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왕권을 유지할수 없다는것이 파하드의 정치적 입장이다.그러나 새로 황태자가 된 압둘라를 대표로 하는 정통보수세력은 파하드의 급진개발정책이 사우디의 왕족통치체제를 붕괴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압둘라황태자가 3만5천명의 정예 국가경호군과 각부족장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반면, 4만명의 국군을 장악하는 술탄국방상, 내상, 리야드시장등은 모두 파하드왕의 친형제다. 파하드왕은 당분간 보수세력과 타협해야 할것이지만 내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사회불안요소를 제압할수있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지 모른다.

사실 사우디는 그 국가규모나 中東지역에서의 역할에 비해 군사력이 너무 약한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과 이란·이라크戰에서 이라크가 몰리고있는 상황은 사우디의군비증강욕구를 더욱자극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있다. 아랍세계의 종주국을 자처하는처지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파멸의 위기에빠진 것이나, 아랍각국이 지원을 해온이라크가페르시아(이란)에 좇기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전부터 미국에서 군사장비를 들여왔고,실제로 국군이나 국가경호군을 美군사고문단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눈치를봐야하기때문에 사우디가 요구하는대로 최신장비를 공급할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란식의 혁명수출을 사전에 방비해야한다는 점에서도 사우디는 불만세력을 흡수할수 있는 내정의 개혁과함께 필요한 군비의 증강을 위해 부족분을 미국외의 다른 곳에서 찾아려 할지도 모른다.

할리드王의 장례를 치른직후 파하드王은 弔問차 사우디를 방문한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이례적으로 1시간이 넘도록 회담했다. 또 궁지에 몰린 야세르·아라파트PLO의장과 24시간 동안 5번이나 전화로 급박한 정황을 논의했다. 이런 사실들은 앞으로 사우디가 親美일변도 외교노선에서 거리를두고 對이스라엘,對이란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것이다.

英國의 선데이·타임즈紙는 헤이그美국무장관의 사임에 파하드王의 對美압력이크게 작용했던것으로 전한다. 베이루트를 포위하고있는 이스라엘軍을 철수시키기위해 파하드王은 윌리엄·클라크美국가안보좌관과 접촉, 언질을 받아냈으나, 헤이그장관이 하비브中東특사에게 이를 유보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파하드王은 이스라엘 철군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행으로부터 사우디자산을 인출하고 사우디에 소련대사관개설을 허용한다는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朴贊式기자】

인사이드

中共, 세계最大 인구센서스

10億대상 오늘부터 실시

인구폭발 억제·경제개발資料 위해

調査要員만 5백70만명의 大役事

세계역사상 최대규모의 인구센서스(호구조사)가 10억이란 엄청난 인구를대상으로 30일자정을기해 中共전역에서 실시된다.

인구의 폭발적증가에 당황하고 있는 중공당국은숙원사업이었던 인구센서스를 이번에야말로 과감히실시, 앞으로의 강력한 인구억제책과 경제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을계획이다.

세계인구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중공인구를 조사한다는것은 그야말로 大役事라할만큼 조사요원만도 5백70만명에 29대의 대형현대식컴퓨터가 동원되고 있다.

중공은 현재 엄격한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정확한 인구통계를 산출하지 못했었다.

중공당국은 센서스 실시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조사에 응해줄것을 널리 알렸으나 역사적으로 정부조사라면 무조건 기피해온전통때문에 애를먹기 일쑤였다.

오랜 세월동안 중공국민들은 통치자의 착취를 벗어나려고 官에서 실시하는 조사라면 기피하는 뿌리깊은 성향에 젖어있다.

이와함께 현 중공사회의 구조도 센서스를 어렵게하고있다. 군대에 징발될 염려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센서스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불법적으로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고있는 농부들은 센서스로 그들의 존재가 탄로날 경우 귀향조치가 취해질것이 거의 틀림없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최근에 사망한 가족을 신고하면 지금까지 별탈없이 타먹던 死者의 배급을 중단당하게 된다.

중공당국은 최근 강력한 인구 억제책으로 도시거주자의 경우 부부당 1명의 자녀만 두도록 지시한바있어 4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정확히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있다.

毛澤東도 중공인구의 민주적 조사는 상당히 힘들며 국민들의 허위신고가큰 문제라고 털어논적이있다. 毛는 지난70년 美언론인 에드거·스노에게『많은 농촌사람들은 배급을 더타먹기위해 사람수는 늘리며 땅을줄여 신고하고 있다』고 인구조사의 어려움을고백한것이다.

그러나『이번에는 정말 잘될것』이라고 국가통계국장 리·첸류씨는 기대에 차있다.

그는 국민들이 정확한인구조사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기초자료로서 결국 생활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센서스에 협조할것이라고 말했다.

1분마다 33명이태어나고 있는반면 11명이 죽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공인구증가는 중공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따라서 중공은 오는2000년까지 인구를 12억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을세우고 이미 엄격한 산하제한제도를 실시해오고있다.

지난3월 중공국무원은 도시 거주세대에대해 자녀1명, 농촌은「실제적인어려움」이있을 경우에한해서 2명을 낳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만약 이러한 지시를 어길 경우 임금이나 배급을 줄이고 필요할 때는「행정제재조치」를 내린다는 엄포를 놓기도했다. 【崔海雲기자】

★美, 전국主要도시일제히 동성애 贊反데모

일요일인 28일 미국에서는 제13회 동성애주간을 맞이하여 수많은 동성애주의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길거리로 쏟아져나와 전국적으로 동성애지지 또는반대시위를 벌였다고.

시위사태는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아틀랜타·애리조나·오하이오등 전국주요도시에서 일제히 벌어졌는데 시위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돌멩이와 계란을 던지는 충돌이 벌어져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으며 시카고에서는 적어도 11명이 난동혐의로 체포됐다는것. 【뉴욕=AP】

◆레이건國家安保會議소집

=레이건 美대통령은 28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 레바논사태를 중점논의한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레바논사태, 대외적으로는 국무장관교체등 중대문제에 직면해 있는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이후 처음으로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워싱턴=UPI】

◆벨파스트서 大型폭발사고

=에이레공화군(IRA)이 북아일랜드에 설치한 폭탄중 최대의 것으로 믿어지는 강력한 폭탄이 28일 벨파스트의 가톨릭교도 거주지역에서 뇌관제거작업중폭발, 최소한 3백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경찰은 적어도 4백명의 주민이 예방조처로 미리 소개됐기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벨파스트=UPI】

★個人기호무시劃一的음식만 北傀 곡예단奇行

공연차 타이를 방문중인 북한의 平壤곡예단이 묵고있는 방콕의 라마·가든즈호텔에서는 이들이 투숙한이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는 우스꽝스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고 방콕의 영자지 네이션·리뷰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얼마전 문을 연이호텔이 훌륭한 식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곡예단원들이 北韓 간부들이 허용한 음식만을 먹기위해 줄을 서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단원들이 일거수일투족에서 철저하게 훈련돼있음을 잘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콕=聯合】

公式이름 윌리엄公

★찰즈 英황태자아들

찰즈 영국황태자와 다이애너 황태자비 사이에서 1주일전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윌리엄·아더·필립·루이스로 결정됐으며 공식적으로는 웨일즈의 윌리엄公이란 명칭을 갖게된다고 버킹검궁이 28일 발표했다.

버킹검궁대변인은 아버지 찰즈 황태자에 이어 영국왕위계승서열제2위인 이 아기의 이름은 전적으로 황태자와 황태자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국에는 지금까지 윌리엄이란 이름을 가진 4명의 왕이 있었으며 그중 마지막은 1830~1837년 영국을 통치한 윌리엄 4세이다. 【런던=頭】

海外토픽

★파리 올해로 15回맞아 술집종업원달리기

최근 파리에서는 유명한 카페의 웨이터및 웨이트리스들이 모두 그들을 위한 달리기시합에 참가하는바람에 손님들은 셀프서비스를 해야만 했다.

올해로 15회째가 되는 이 시합의 목적은 단순한 빨리달리기가 아니라 규정된16인치의 쟁반에 빈잔3개와 물이든 포도주병 1개를 올려놓고 균형을 잡으면서 달리게 함으로써 이들의 서비스능력을 측정하는데 있다는것. 【파리=UPI】

外信안테나

◆사우디收監者 다수釋放

=파하드 사우디 아라비아국왕은 28일 사우디수감자중다수를 석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4천만리알(약1천2백만달러)을 나눠주도록 지시했다.

할리드前王의 서거에따라 이달초 즉위한 그는 또 회교聖月 라마단을 맞아 정부공무원및 군인들 전원에게1개월봉급액수를 보너스로 지급토록 지시했다고 사우디內相 나예프公이 밝혔다. 【리야드=AP】

◆對英적대관계公式종지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에 항복한지 2주일이지난 28일 영국과의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중지할것을 받아들인것으로 보도됐다. 【부노스아이레스=頭】

◆波노동자4천명 示威

=약4천명의 폴란드 노동자들은 28일 75명의 사망자를 낸 1956년 포즈난 폭동을기념, 『자유노조 만세』등을외치며 포즈난중심가에서 시위행진을 벌였으나 급거출동한 무장경찰과 사소한 충돌을빚었을뿐 곧 자진해산했다. 【포즈난=AP】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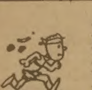
마라톤은 흔히 올림픽의 꽃으로 일컬어 진다. 1936년 우리의 손기정선수가 베를린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썼을때 그것이 마라톤이 아니고 딴 종목 이었다면 온 나라 안이 그렇게까지 흥분과 환희의 도가니로 끓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라톤에 대한 이같은 동경은 우리나라의 경우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 인것 같다.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때 바로 개최지인 아테네 출신의 스피돈·루이스(양치기라고도 하고 우편배달부라고도함)가 선두를 달려 장내로 들어올 무렵의 일이었다. 귀빈석에서 이 광경을 본 조루주황태자는 기쁨과 감동을 가눌길이 없어 자리를 박차며 경기장으로 뛰어내려 선두를 달리는 루이스선수와 나란히 골까지 함께 뛰었다. 순간 축포와 환호와 박수가 한꺼번에 터져 오르고 모자를벗어 하늘로 던지는 군중의 흥분은 좀체로 가라앉지 않았다. 루이스선수는 순식간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어느 부자는 그에게 호화저택을 지어 선물했고 또 어느 식당주인은 10년간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는식의 법석이 벌어질 정도였다.

우리마라톤은 근래 확실히 부진상태다. 손선수이래 서윤복·남승룡·최윤칠로 이어지며 국제대회에서 비쳐진 승리의기록이 단절되는듯한 안타까움을 오랫동안 되씹게 하고 있다.

비록 기록(2시간17분15초)은 국내최고에도 못미쳤으나 27일 호주 시드니서 열린 제44회국제마라톤대회에서 때마침 전지훈련중이던 우리 南仁圭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전갈은 이런마라톤불황을 적셔주는 한줄기 샘물을 대하는것같다.

시드니 마라톤



특히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서울국제마라톤의 우승자를 비롯하여 3개국 6백4명의 선수들이 출전했고 또 南선수는 레이스 6㎞지점에서넘어져 부상한 악조건을 무릅쓰며 자기 기록을 2분34초나앞당기고 거둔우승이었다. 88년올림픽의「꽃」위에 거는 희망에 한가닥 가능성이 보인것이라 할법하다.

하나 세계마라톤의 기록은 이미 2시간8분33초6이다.그마저 1967년에 세워진 묵은것이다. 南선수의 이번기록은 1954년대에 세워졌던것과 맞먹을따름이다. 마라톤기록단축의 급템포를 익히 헤아릴수있겠다.

이런 판국에서 다가오는 올림픽때 南선수가 가장 아름다운그「꽃」을 차지하려면 오직 주력의 스피드화를위하여 스스로와의 대결에서 촌각과 촌각을 줄여나가는 외롭고 피나는 각고의 길, 인내의길밖에 달리 도리는 없을듯하다.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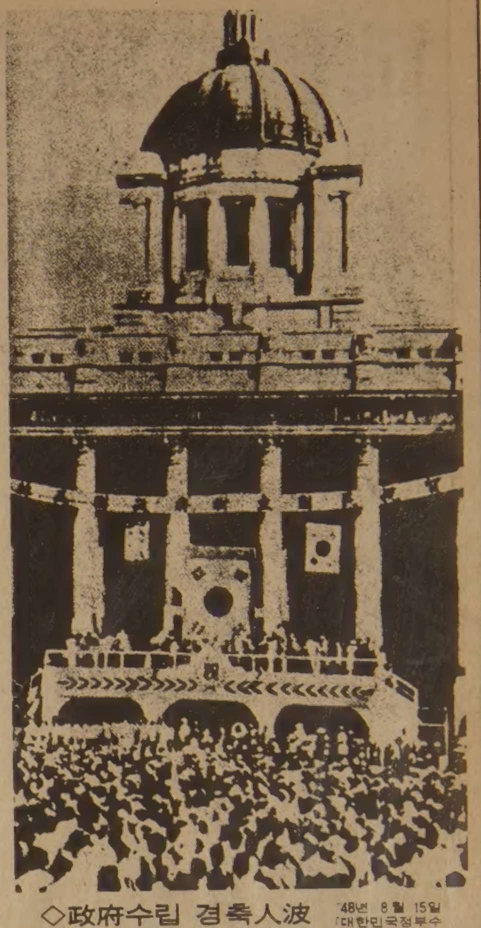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한국, 한국人

우리의 淵源과 實體를 찾는다 <1>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그것을 줄여서 「한국」이라 부른다. 덧붙여서 우리는 「한국인」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온지도 34년이 지났다. 「한국·한국인」은 어느새 영욕과 숙명이 함께 하는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한국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에 무심하게 지나쳤다. 왜 「한국」이며 왜 「한국인」인지는 잘 모른다. 잘 모를 뿐만아니라 아직도 「조선·조선인」의 식민지적 의식속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일보」창간 28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연재물로 「한국·한국인」의 연원(淵源)과 실체(實體)를 찾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한것은 우리는 한국사에 깊이 뿌리박힌 이같은 아이덴티티·크라이시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과연 왜 「한국」이며 왜 「한국인」인가.



◇政府수립 경축人波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라는 플래카드가 높게걸린 중앙청

겨레의 숨결… 永遠한 이름

大韓民國이라는 國號가 탄생한 것은 1948년8월15일의 일이다. 3·1운동직후 중국 上海에서 세워졌던 망명정부 大韓民國의 국호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그보다 훨씬 옛날 이땅에는 三韓이 있었다. 금세기초에는 大韓帝國이 있었다. 大韓民國의 탄생은 우리 민족이 「韓」이라는 나라이름을 다시 찾은것을 뜻한다.

해방후 3년동안, 더 길게는 일제하 35년의 세월은 우리국호의 「실종시대」였다.

우리나라를 집어먹은일본이 나라의 이름(大韓)을 빼앗고 「조선」이란이름으로 고쳐부르기 시작하자 우리민족은 「韓」이란 나라이름을 차츰 잊게 되었고, 자연스레 「조선」이란 이름이 입에 배었으며, 해방후 3년동안도 그대로 「조선」이란 이름을 써왔다.

자주독립,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피와 땀을 바쳤으면서도 정작 나라이름을 되찾는데는 무관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8·15광복후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 부른 것은 제헌국회 개회식에서 李承晩박사가 임시의장에 추대되어 취임사를 할때가 처음이었다.

48년 5·10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같은달 31일 상오 10시 현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李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대했다. 李박사는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제1성을 발했다. 이어 등단한 李允榮의원은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함께 남북평화통일을 주시옵고…』라고 「조선」이라 우리나라를 불렀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엄연히 공식발언에 이처럼 두가지 국호가 등장한 것은 나라의 이름이 통일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이란 이름은 그때는 생경한 것이었다. 많은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아무 저항감 없이 조선이라 불렀으며 각정당 사회단체및 기관의 이름들도 대개는 조선××당이니, 조선○○회니 하는 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李박사의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것이라 할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정해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후 제헌국회에서 꼭2개월에 걸쳐 국호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李박사가 은연중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國號탄생 前夜

「韓」은 三韓등서 脈絡이… 나라함께 잃었다 찾아

李박사는 이날 국회의장으로뽑힌 뒤 하오2시에 발표한 개회식사에서 다시 「대한민국」이라 국호를 못박고 『한국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라 말하며 「한국」이란 통상명칭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헌법기초위원회가 내놓은 헌법초안에는 「韓國」이라 돼있었다.

俞鎭午씨가 주축이된 10명의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첫헌법초안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韓國人民은…』으로 시작된 前文에이어 제1조에 『韓國은 민주공화국이다』라 국호를 못박았다.

이 초안은 6월3일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표결에의해 大韓民國으로 국호가 고쳐진채 본회의에 제출된다.

당시 신문은 『가장 주목되는점은 국호문제인바 당면 동문제로 각 위원간에 격론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표결한결과 大韓民國 17표, 高麗共和國7표, 朝鮮共和國2표, 韓國1표로 大韓民國으로 낙착되었다 한다』고 보도했다.

이 표결에 붙여진 4개의 국호 가운데 大韓民國은 李박사의 추천, 高麗는 仁村 金性洙씨의 추천, 韓國은 전문위원들의 안으로 알려졌고 朝鮮은 누구의 추천인지 알수 없으나 30명의 기초위원 가운데 과반수인 17명이 대한민국을 지지한 것이다.

普成專門을 高麗大學으로 바꾼 仁村은 전문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高麗」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전문위원들은 대부분 「韓國」을 지지했었다.

이날 표결때 池靑天장군이 남긴 일화는 지금도 관계자들사이에선 유명하다.

그는 기초위원이 아니면서도 7일 국호를 정하는 회의장에 나와 『국호는 大韓民國, 연호는 檀紀로 하지 않으면 이자리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열을 올렸다는것이다. 上海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정부이니만큼 국호는 당연히 大韓이돼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기초위원들은 『할복자살은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 장군께서 그리시면…』하고 웃었다는 것이나 일부의원은 그의 고집이 「국호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아 시간절약을 위해 국호에 관한 건의는 서면으로 받기로」결정됐다.

첫 서면건의자는 郭尙勳의원(釜山출신·작고). 그는 국호를 大韓民國이라 정한 의의와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徐相日의원은 『大韓이라고하는 말은 舊韓國시대 韓日합방조약에서 썼던것을 참작한것이다. 그때 大韓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韓日합방으로 없어졌다』고 大韓의 근거를 밝히고 『3·1운동이후 국내외에서 임시정부를 조직, 그때도 大韓이라 이름붙여 왔고 이 국회가 처음 열릴때의 장신상에서 大韓民國36년이란 年號를 쓴 관계로 이 헌법초안에서도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할수 없어서 大韓이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太韓·靑丘·東震등 百出

池靑天 "「大韓民國」아니면 割腹"一喝

이 국회본회의에 제출되자 많은 이견이 속출했다. 大韓民國이좋다, 나쁘다는찬반양론에서부터 각양각색의代案들도쏟아져나왔다.

23일에 열린 헌법심의 제1독회에서 徐相日기초위원장(大邱출신·작고)이 초안작성경위를 보고하고 나서 徐위원장은 『冠詞로 大자를 사용하면 帝國主義의 기분이 들지않을까, 그말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개인으로서도 오늘에 있어서 大자라고 하는것은 非民主的이라고 하는것이 表示되어있지않을까 합니다』하고 조심스럽게 반대의 의견을 비추었다.

이에 대해 徐容吉의원(牙山출신)은 『「大韓」이란 것은 문자그대로 배안의 병신이올시다』하고 격렬한 표현으로 일갈하고는, 또렷한 반론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채 반대하고 나섰다. 陳憲植의원(燕岐출신·전내무장관·작고)은 이를 받아 찬성발언을 했다. 『大韓民國은 3·1혁명투쟁을 통하여 조성된 국호이며 이역사적 光榮을 가진 국호야말로 대내적으로는 민족통일의 기초가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투쟁의 금자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해야합니다』

李鍾穀의원(天安출신·작고)은 大韓이라 하는것보다 「太韓同和國」으로 하자고 제안, 장내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李의원은 『大韓이라는 大자는 크다는 의미인데 제 생각에는 太陽처럼 몸太字를 써서 太韓으로 하고, 共和國의 한가지 共字가 이상스러우니만큼 同和國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하고 말했다.

어떤 의원은 「靑丘」를 주장하기도 했고 「東震」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회의 입씨름이 끝간 데 없이 되풀이 되는 사이 시중에서도 국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었다. 사무실에서, 술집에서, 거리에서, 차안에서, 모여 앉기만하면 국호논쟁이 벌어졌다.

제헌국회 초기의 두가지 이슈는 국호문제와 정부체제문제, 특히 대통령 중심제로 할것이냐 내각책임제로 할것이냐하는것이었다. 당시 한신문은 국호문제에대해 독자의 앙케트 설문을 받아 보도했는데 검찰청차장 鄭僑耆씨는 『大韓이라하면 어쩐지 舊韓末의 괴뢰정권을 연상케할뿐아니라 봉건의 냄새가나서 섬미에 맞지않는다』며 「새한」으로 하자고 하였다.

韓民黨의 郭尙勳의원과 新進黨의 金明淳씨는 高麗共和國을, 獨促黨의 金學奎, 大靑의 李瓚根, 저축은행의 權石臣씨등은 大韓民國을 지지했으며 국어학자 鄭寅承씨와 金益均씨(實業家)는 朝鮮이 좋다고 하였다.

이토록 논란은 시끄러웠으나 정작 국회본회의표결에서는 大韓民國안이 압도적 다수표로 가결되었다.

7월1일에 속개된 제2독회(22차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8명가운데 163명이 찬성하고 2명만이 반대한것이다.

그러나 이 표결은 여러가지 이름가운데서 하나를골은것이 아니라 헌법제1조(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그대로 통과시키는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만을 가린 것이다.

헌법안 제2독회때 大韓民國안을 은근히 반대해오던 徐相日기초위원장이 국호문제가 결정안되었기때문에 이문제부터 결정하자고 운을떼자 李承晩박사는 몸이 달았다.

李박사는 이같은 급박한 사정을 완곡하고도 설득력있게 설파했다. 우선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보자는 작전이었다.

『국호가 잘되었다고 독립이 잘되고 국명이 나쁘다고 독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호는 차차 국권이 정돈되어가지고 민간의 의사를 들어 대다수의 결정에 의해 그때 법으로 작정하는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호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李박사의 불안과 작전은 맞아떨어졌다. 李박사의 발언을 이어받은 崔國鉉의원이 지금까지 거론된 국호에 어떤것들이 있었는가를 열거했으나, 사회를 보던 申翼熙부의장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曺奉岩의원(仁川출신·작고)이 李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힘, 결국 제1조를 통과시킨 것인지 여부를 표결에 붙이게 된 것이다. 【文昌宰기자】

나의 證言

「大」字에 日可曰否… 李박사 입김으로 制憲國會 채택

▲朴瓚鉉씨 〈제헌의원·前문교부장관〉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헌법초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국호에 관한것이 제일 문제가 되었다. 大韓民國안이 못마땅했던 이들이 초안에 大韓民國이라 국호를 정한 이유와 근거를 대라고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국호논쟁이 시작돼 패회도록 시끄러웠다. 그런 과정에서 대안도 여러가지가 나왔다. 朝鮮·高麗같은 옛이름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나 東震·靑丘같은 낯선 이름들에 대해서는 별로 동조자가 없었다.

최후의 본회의 표결에서 大韓民國이 압도적다수표로 결정된것은 李承晩박사의 입김 때문이었다. 李박사가 하도 강력하게 大韓民國을 주장해서 감히 그의 뜻을 거역할수 없었던 것이 그때 국회의 분위기였다.

▲任文桓씨 〈제헌국회헌법기초위원회전문위원·釜山프라자호텔회장〉

전문위원 10명이 작성한 최초 헌법초안에서는 國號이 「韓國」이라 돼 있었다. 아무도 이의가 없었다. 李承晩박사를 위시한 해외 독립운동파 지도자들 가운데 大韓民國으로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왔지만 우리 전문위원들은 큰大字를 붙이는것에 거부반응을 느꼈다. 大韓제국같은 군국주의 냄새가 나 인상이 좋지않았고, 앞으로 자손만대로 수만번, 수백만번 나라이름을 써야할텐데 너무 자가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세부리지않고 그냥 韓國이라 하는것이 제일 무난하다는 생각이었다.

한가지 기억이 새로운 것은 仁村선생이 高麗공화국을 주장한 것이다. 어느날 부름을 받아 찾아가 뵈었더니 은근히 高麗라는 국호가 어떠냐고 했다.

기초위원회에서 大韓民國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가 나온 것은 기초위원도 아닌 池靑天의원이 회의장에 나와 大韓民國으로 하지 않으면 할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尹吉重씨 〈제헌국회헌법기초위원회전문위원·民正黨의원〉

당시의 분위기는 大韓民國이 압도적이었다. 국회개원이전의 법의위원회기초과장으로있을 때의 창이던 申翼熙선생께서 국회개원에대비해 헌법초안을준비하라 하지않겠는가해서 행정연구회가 俞鎭午선생등 관계한자들을 초빙해 초안을 만들었다. 大韓民國은 임시정부가 계승써온 국호였기때문에 그대로계승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大字를 빼고 그냥 韓國이라 한것인데 이것이 기초위원회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당시 한민당 한국동에 큰곳에서도 초안을 만들었는데 대개가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148>

응달 ㉘

오목이는 반항하지않고 그의 어깨위에 턱을얹고 맞은편 벽의 벽지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과히 더럽다고도 깨끗하다고도 할수없는 싸구려벽지까지 인재의 하숙방하고 비슷했다. 그곳에서 인재한테 당한일이 그리움처럼 상처처럼 욱신거리며 되살아났다.

일환이한테 보물같은 아낌을받을수록 인재가 자기를얼마나 마구잡이로 난폭하게취급했던가를 알것 같았다. 나는 보물이야. 아무 보잘것없는 걸레야. 너는 속고 있어.

일환이를 속여먹는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할것같았다. 일환이는 워낙 정이 깊으니까.

일환이의 가슴속은 고향처럼포근했다. 출생이 확실한 근거있는 사람들이 고향이라부르는 것은 결국은 정이 깊은고장의 이름이 아닐까.

오목은 지치고 상처받은몸에 고향에 돌아온것 같은 안도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더 많이 허전했다.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선 고향을 이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만만한 곳이라고 깨닫기 위해선 누구든지 고향을 떠나지봤던 날갯죽지를 잃거나 부러지는 아픔을 겪지않으면 안된다. 그녀는 안도감때문보다는 죽지부러진 자신의 작은 날개에 대한 미련때문에 더 더욱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일환이가 그의 어깨에 얹힌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려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귀에 그의 세찬 심장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입술과 혀가 그녀의 눈귀를 넘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적시고 귀바퀴로 흐르는 눈물을 조심조심 닦아내기 시작했다. 오목이는 묘한 감동에 몸을떨며 그가 하는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갓 태어날때처럼 무구(無垢)해지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곧 일환이의 몸을 그녀의 몸속깊숙이 받아들이면서 그럴수는 없는 일이라는걸 깨달았다. 아직도 인재의 칼날처럼 예리하고 무자비한 육신의 감촉이 싱싱한데 다시 두번째의 남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러운 여자였다. 그녀는 눈멀고 귀먹어도 구별할수 있을만큼 깊이 두남자의 육신을 알고있다는게 부끄러워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이런 데서 이럴 작정은 아니었어』

일환이가 낭패한듯이 이렇게 말하고 그녀를 위해 잠자리를 편하게 바로잡아 주었다.

옆방에서 남자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선 술주정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밖에선 찍찍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오목이는 이불로 앙상한 어깨를 감싸고 몸을 똘똘 뭉쳤다. 그 이부자리를 거친 수많은 사람의 체취가 코를 찔렀다. 일환이에 의해 인재의 자국을 지울수는 없었다는 깨달음과 감히 그럴수 있기를 획책한 자신의 간교함에 대한 증오로 그녀는 늦도록 잠을 못이루었다.

일환이도 전전반측 잠을못이루고 있었다. 거의 새벽녘까지 계속되던 여관집의 소음이 가라앉자 서로의 잠못이룸이 더욱 뚜렷하게 잡혀 뭔가 참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목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오빠, 내 걱정 안해도 돼. 나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안해도 돼. 정말이야. 왠지 말해줄까?』

流星의 賦 <41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⑰

다음에 여자를 묻어놨다. 여자의 얼굴과 맵시는 가히 절색이라고 할수 있었다. 모두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을 죽였을 정도였다. 흡계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로 경성지미(傾城之美), 경국지미(傾國之美)란 말을 실감으로써 확인할수 있는 미인이었다. 군데군데 귀히고 흠이 묻기도 하여 그녀가 끌려 올 때의 저항을 짐작케 했는데 그런 상처와 오염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아름다움은 처연(凄然)의 도를 더했다. (저런 요사스런 년에게 어떻게 저와같은 미를 주었을까)

싫으니 증오심은 더했다.

신병의 설명에 의하면 여자의 이름은 김탐단(金丹). 남양 섬진사의 첩이었는데 왜병이 침입하자 왜의 부장(部將) 흑전장병위(黑田長兵衛)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한다.

『이년의 오라비 김막동이란 놈도 부역하고있는 놈인데, 놈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년은 왜병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날 잡아잡수, 하는 교태를 부리는 것을 흑전인가 하는 놈이 눈독을 들여 끌고갔다고 합니다. 그후 이년의 사주로 인근의 양반들이 왜병에게 끌려가서 혹은 죽기도 하고 맞기도 하여 무지무지한 곤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계남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탐단을 보면서 아픔을 몸반하고 가슴 속에 되살아나는 숙람에의 모정을 느꼈다. 그러한 감정의 탓으로 계남이 계한 말투가 되었다.

『네, 이년 고개를 들어라』

김탐단이 고개를 들었다. 포박된 몸이지만 스스로의 미모를 의식하고 있는 오만이 얼굴을 더욱 처연하게 물들였다.

『너는 정절을 아느냐』

『아옵니다』

늠름한 대답이었다.

『정절을 아는 년이 한 짓이 그런가』

계남이 거칠게 말했다.

『소녀는 정절을 개 같은 양반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마음에 충실하는 것이 정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놈에게 몸을 판 너의 행위가 정절에서 나왔단 말인가』

『정녕 그러하옵니다』

『이 해괴망측한 년』

계남의 말의 증치가 막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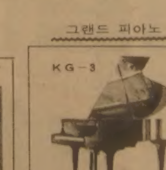
김탐단이 말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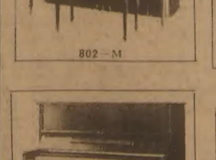
『소녀는 섬진사의 노비로서 이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섬진사의 비부이었습니다. 열세살때 섬진사의 아들 신법이란 자에게 정조를 유린당했습니다. 그런데 열다섯살때 소녀는 섬진사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직전 소녀의 아버지도 신법이 이미 소녀를유린했다는 사유를 은근히 섬진사에게 알려 극력 말리려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섬진사는 발을주고 쉬지않으니까 허무맹랑한 거짓을 꾸며 집안을 망치려고 한다고 곤장으로 쳐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소녀가 순순히 섬진사의 첩이되어 금수와도 다름없는 처지를 감수한것은 그일념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는 데 있었습니다. 내몸은 이미 짐승들에 의해 짓밟힌 몸, 썩은 목석과 다름이 없은즉 이름을 미끼라도 해서 원수를 갚고자했고 갚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이것을 정절로 알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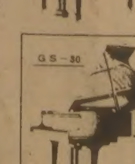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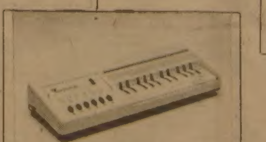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여름철특별대매출

BONTEMPI이태리안 올갠

$99.00



$39.95

$799.00

$399.00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기간 : 7월7일~8월25일

특수과목 : THEORY(GRADE I, II)
HARMONY(GRADE III)
HISTORY(GRADE IV)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10年의 歲月을 건너 다시「現場」을 간다

한국文學의 숨결찾아 再連載를 시작하며

金容誠

文學史 探訪

「文學史探訪」이란 제목으로 한국일보를 통해 작고했거나 납북된 문인들의 작품의 현장과 생가와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내용으로하는 탐방기념 문학작품의 소개기를써서 주1회씩 45회를 연재했던 것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두번 세번변하는 시대가 되었다。그 무렵 퇴락은 했지만 그래도 원형이 남아있던 陸史의 생가마을은 이제 안동댐으로 수몰지구가 되어없어졌고 李孝石의 珍富 묘소 앞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훤히 뚫렸다。뿐만아니라 朴寅煥이 숨을 거둔 세종로 집자리에는 거대한 教保빌딩이 들어섰다。

오늘은 전라도、내일은 경상도로 경황없이 뛰어 다니던 그때、기억에 새로운 것은 가람의 益山 守愚齋와 永郞의 모란밭과 芝薰의 英陽 산골과 洪思容의 들판이다。그것들은 또 지금 어떻게 변모했을까。그러나 변하지 않는것은 그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키운 詩心과 문학정신일 것이다。그것은 때로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목마른 우리의 갈증을 덜어주는 청량제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항거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도했다。그것은 더러 우리를 아늑한 꿈 속으로 인도하기도 했고 더러는 냉엄한 현실로 내몰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문학이 무엇인지 윤곽조차 잡지 못했는 데다가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그들의 인생과 작품의 세계를 제대로 소화시켜 독자에게 전달하지를 못했다。

내가 연재를 마치고『韓國現代文學史探訪』이란 제목을 붙여책으로 출간하자 이 방면의 연구자들로부터 특히 생애와 작품의 年譜에서 여러군데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받았다。그 점에서 특히 『文學思想』의 기획물인「그것은 거짓이었다」를 통해 나의 오류를 바로 잡아준 金根洙 교수에게는 지금도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있다。또 작년 東國大대학원에 재학중、초창기 한국문인들의 유학시절 자료를 日本에서 발굴한 일본의 유학생 시라까와 유다까(白川 豊)씨가『月刊學』(81년5월호)에 발표한 글에서도많은것을 배운 바가 있었다。참으로 정확을 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다。나는오류를 지적 받았을때마다 낯이뜨거도록 부끄러워했다。하지만 어떤 부면에서건 한 사람의 힘으로 완벽한 것을 이룩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고자위도 해보았다。어떤 이는 당신의「文學史探訪」이 없었다면 오류를 잡아줄 대상도 없었을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기도 했다。

◇辛夕汀이 첫시집「燭불」을 펴냈던 扶安의 青丘園에서 자료수집을 하고있는 작가 金容誠씨。

또 한번 변한 江山 더듬어

作品·生涯·환경 함께 照明

教養的 시각에서 讀者들에게 전달

첫連載때 도움주신 많은분들 他界…감회와 두려움 앞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감히 용기를 내어 다시금「文學史探訪」에 도전하려는 첫째 이유는 거기에 있다。틀림없는 일이겠으나 또 몇개의 잘못을 저지르는한이 있더라도 문인각자의 요람에서 묘비까지、그리고 그생애를 관류하여 고향을찾는 고행속에서 직조해번 언어와 그 현장들을 찾아 문학에 관심을가진 사람들만이아니라 일반독자들이 탐방에 보여준 흥미는 나름대로 컸던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문인들이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10년전 내 탐방에서 조언을 해주었던 분들가운데서만도 얼른 머리에떠오르는대로 열거하면 현대문학 초기의 시인 작가들과 많은 교분을 가졌던 月灘、가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夕汀、金東鳴의 가르침을받았다던 安壽吉、아우 朱耀燮을위해 家系를 말하던 주요한、역시 아우 青馬를 먼저보냈던 柳致眞、盧天命과 교분이 있던 金珖燮、陸史와 경주여행을 함께갔던 申石艸、그리고 朴啓周·金容浩와 납북되어 가다 각기 탈출에 성공했던 朴榮濬 또한 타계했다。

이들 외에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불현듯 죽음을 맞이했다。그들은 한국문학을 살찌게했던 중요한 문학적 자산들이다。그들의 업적을 기리며 잠깐하게 나마 생애와 작품을 더듬어 본는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이것이 탐방에 무모하게 달려드는 두번째 이유이다。

白鐵교수는 著書「韓國現代文學史探訪」의 序文을 내려주는 가운데서 이렇게 언급했다。「저자는 그때마다 작가의 작품적인 이력을 캐는것에 그치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모든 작가적 사실을 탐방 발굴해서 그작가의 작품적인 의미와 인간적인 숨겨진 사실과의 유기적인 인연 관계를 밝히 확인한 성과의 발표이다。

이와같이 작품·작가·연구에 있어서 그 배경과 근원에대한 조사 연구 작업은 얼른 보면、근대적인 문학 연구의 방법을 연상케 하지만、내가 알기엔 현대에 있어서도 가령、작품의미를 정신분석하는 비평가 등에 있어서도 배후의 사건을 證人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방법이며 심지어 뉴크리틱들도 뒤에 와선 그 배후의 사실을 중요하게 참조하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이런 복합의 연구 작업은 현대적인 문학 연구의 한 특색이라고 본다」

자신의 책에 실은 과찬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매우 쑥스럽기는 하지만、구태여 옮겨 쓴 것은 그의 나중 귀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근대적인 문학 연구의 방법」이라 함은 프랑스의 생트뵈브와 텐느의 역사주의 비평을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다。사실상 역사주의 비평의 확립 이후、많은문학연구의 이론들이 나왔다。

新批評으로 대표되는 형식주의 비평、코울리지에게서 계보를 찾을수 있고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학의 힘을 입은 심리주의 비평、원형 비평과 구조주의 비평、바슐라르의 문학 비평 등등。물론 문학 작품 하나하나를 놓고 분석할때 이러한 연구 방법들은 매우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심층분석을 피할수 있게 한다。그러나 한 시인·작가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자면 역사주의에입각한 연구 방법과 제휴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는다。

그 연구 방법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생트뵈브에 따르면 첫째 시인·작가의 신상、즉 그의 조상과 교육과 환경과 독특한 개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둘째 시인·작가의 문학적 생애、즉 그가 읽은 것과 사귄 친구들과 흥기취미와 철학의 취향을 이해해야 하며、세째 그가 그의 시대의 일반적인 생활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었고 그가 지지한 정치적 관심은 어떤 것이며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것을 개혁하려했는가 따위를 연구해야만 그가 쓴 문학작품들을 올바르게 해석할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연재하는 지면이 신문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은 문학이 문학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작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는 것과 그들의 삶이 곧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될 것이며 나아가 그들과 그들의 작품에 보다 깊은 친밀감과애정을 기울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작업을 꾸려가는 데에는 난관이 없지도않다。우선은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인·작가의 분단 이전의 행적과 작품의 무대를 답사할수 없다는 것이다。가령 예를 들면 安壽吉의「北間島」를 다룰때 나는 그 작품 배경의 사진 한장 없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더듬거릴수밖에 없다。그뿐만이 아니다。어느 시인·작가의 사상에 접하고자 할때、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여건으로 보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또 이기회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6·25동란을 전후、월북 또는 행방불명이 된 시인·작가들중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작품이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것이면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만이 아니라 저널리즘에서도취급할수 있었으면 하는것이다。왜냐하면 결코 풍부하다고 할수없는 우리 현대문학의 자산을 보다 일반화하여 늘리는 일이 되겠기 때문이다。

난관의 다른하나는 내지식의한계이다。우리 文學史도 제대로 소화하고있지 못한 처지로서 문학사만큼이나 일반역사와 사회사와 정치사에 통달해야 하는 이 작업에 나는 곤혹감을 지나쳐 일종의 공포심마저 느낀다。

하지만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이것이 전문가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고 문학에의 관심자와 교양 독자를 위한 시리즈라는 것이다。아마도 유족친지들의 전폭적인 도움과 강호제현의 지도 편달을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앞으로 주1회씩 30회 가량에 걸쳐 무순으로 시인·작가·극작가·아동문학가·수필가·비평가들을 다루어 나갈 생각이다。

<筆者略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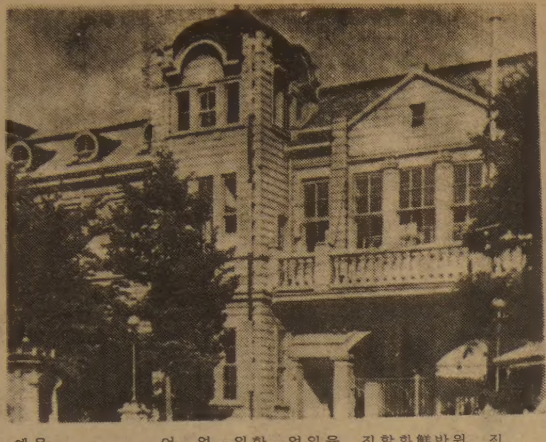
▲1940년 日本 고오베 출생。
▲1961년「한국일보」 6백만환 장편소설 공모에 <잃은 者와 찾은 者>당선,문단 데뷔。
▲1964년 慶熙大學校 英文科 졸업。
▲1969년 해병중위로 제대。
▲1971년까지 한국일보社 기자 근무。이후 창작 생활에 전념。
▲1972~3년에 걸쳐 한국일보에「文學史探訪」연재。
주요작품집으로는 <리빠똥將軍><쉬나무소리> <화려한 外出><密航>등과 장편소설 <來日 또 來日><떠도는 偶像><裸身의 제단><짓밟> 등이 있음。

한국,한국人

우리의 淵源과 實體를 찾는다 <2>

누가「朝鮮」이라 고쳤나

「大韓」을 平價切下위해 日帝가 強制개칭



◇나라를 빼앗고 이름과 혼마저 박탈하는데 앞장섰던 朝鮮總督府의 옛청사。南山중턱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자리에있던 이건물(倭城臺)에는 합방전까지 統監府가있었고 합방후 朝鮮總督府로 간판을 바꾸었다。이건물은 1926년 새 총독부건물(현 중앙청)이 완공되자 科學박물관으로 쓰이다 6·25동란때 불탔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우리를「조센진」이라 부른다。

TV일기예보시간에는 기상통신위성이 찍은 사진을 방영하면서 韓반도를 일러 어김없이 조센한또(朝鮮半島)라 부르고 있으며 민족、문화、요리등 한국과 관련된 얘기를 할때는 항상「조센」을 앞에붙여야 직성이 풀린다。

지난해 NHK방송국이 한국어교육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을때 프로의 명칭문제가 말썽이 된 일이 있었다。

방송국측은 서울말을 표준어로한 한국어교육방송을 개시한다는 자체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프로 이름은「조선어교육」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측의 반발에 부딪쳐「조선어」를 관철할수 없게되자 방송국은 작년10월로 내정됐던 방송개시 예정을 취소하고 말았다。

「한국어」라는 명칭을 쓰기보다는 고집이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결정돼 한국어교육방송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방송국측은「조선어」라는 이름대신「한글교실」로 프로이름을 삼자는「묘안」을 냈다。그러나 똑같은 고민이 생겼다。「한글」이 일본시청자들에게 낯선 말이어서 어느나라말이라는 설명을 부제(副題)에 달아주어야 하겠는데「조선어」라 했으면 좋겠으나 한국측의 반발이 꺼려진다는 것이었다。

기자는 당시 이프로 기획 담당자와 몇차례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이고 일본은 대한민국과만 국교를 갖고있다、당연히 한국어방송이라 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조선」이란 칭호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말했다。

『조선이란 일본이 옛날부터 써온 말이다。그래서 일본사람들의 입과 귀에 가장 익어있는 호칭이다。한국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나라이름으로 써오지 않았느냐?』

이에대해 기자는 또 반문했다。사람이름이나 나라이름같은 고유명사는 사실대로 불러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만일 당신의 본명대신 아명(兒名)이나 구명으로 부르면、좋겠는가。

그랬더니 그는 솔직할수 없다는 표정으로『그렇지만…』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뿐 아니라 일본에서 만나본 많은 일본인들이 모두 같은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두나라간의 현안문제인 경협문제를 말할때는「닛칸간께이(日韓關係)」「간꼬꾸세이후(韓國政府)」라고 말하지만 비공식적인 경우에는 한사코「조센」이다。

말할것도 없이 조선이란 말은 일본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붙이고 의도적으로 불러온 어거지 호칭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한 19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大韓帝國이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한뒤 하루아침에 조선이라고 국명을 고쳐버린것은 大韓帝國이라는 나라의 格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한 지방으로 격하하기위한 침략근성의 의도였읍니다』

역사학자 李鉉宗씨(국사편찬위 편사실장)의 설명이다。

망국의 날인 1910년8월29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보면『韓國의 國號는 改하야 爾今朝鮮이라 稱호이란」고 되어있어 한방의 그날부터 나라이름을 말살하려했던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같은날짜의 관보에는 또『朝鮮總督府를 置함이라。종래 舊韓國政府에 속한 관청은 內閣과 表勳院을除하는 조선총독부관서로 간주ㅎ야…』하고정부기관의 존속문제에대해 언급하고있다。종래의우리정부를「조선정부」라 하지않고「舊韓國정부」라 한것은 어쩔수없는 표현이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1개월여후인 9월 30일 漢城府를 京城府라 개칭하고 행정구역을 축소시킨뒤 당시 漢城府보다 격이 낮았던 京畿道밑으로 京城府를 편입시킨 조치는 우리나라의 格을 평가절하한다는 저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대한 평가절하작업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매국 오적(賣國五賊)의 간계에 의해 한방에 성공하자마자 저들은 이땅에서「韓」이란 글자까지 씨를

◇일본은 한국병합과 동시에 韓이란 글자를 말살하기위해 大韓每日申報의 제호에서 大韓이란 글자를 빼게 하고 총독부기관지로 삼았다。

新聞이름에도「韓」字는 빼게

말려버리기 시작했다。韓國의 국호를 상징하는 명칭을 강제로 고치기 시작한 것이다。합방 3일만인 8월31일자로 大韓新聞은 漢陽新聞으로 제호를 바꾸게 하였으며 大韓每日申報는 每日申報로、大韓民報는 民報로 바뀌었다。

심지어 皇城新聞의 제호가 불경하다 하여 漢城新聞으로 갈았고 大東共報의 共字가 마음에 걸렸음인지 이 신문은 大東新報로 바꾸게 했다。

이들의 저의는 초대 총독으로 취임한 데라우찌(寺內正毅)의 시무식 훈시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

10월1일 南山의 倭城臺에 조선총독부 간판을 내건 데라우찌는 훈시했다。『이땅 이 판도는 오늘부터 大韓帝國이 아니라 朝鮮이라 부른다。漢城은 京城이라 한다。저들은 朝鮮보다 大韓帝國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京城보다 漢城에 연연하며 日本帝國의 臣民이기보다 韓民族이기를 원하지만 나를믿고 지시대로 奉公하라』

나라잃은 우리민족의 울분을 그토록 잘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민족의 마음과 눈과 입과귀에서 大韓이란 나라이름을 박멸시키려 한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그날 純宗황제를 李王이라 격하시키는 식을 거행함으로써 1단계의 막을 내리게된다。

국호를 빼앗고 황제를 평민으로 끌어 떨어뜨리고、한(漢)의 이름을 가진 수도의 이름을 갈고 활자매체에서 韓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으로 韓民族의 주체성을 모두 빼앗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文昌宰기자】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이달의 小說

李在銑 〈西江大교수〉

戰爭의 傷痕과 극복

6월은 우리에게 전쟁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그래서 그런지 이달의 작품들 가운데는 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이 여러편 있었다。이들 작품은 인간적 가치를 破壞하는 전쟁의 心理的 외상의 耐性이 오늘에까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룬것들이었다。

작가가 바로 우리들 시대의 역사가 경험했던 인간상호관계의 파괴및 이의 지속화현상에 盲目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그런 점에서 전쟁이 남긴 심층적 상처와 후유증 즉 그것이 다음세대에까지 이어주고 있는 遺産의 정체를 점검해 본는것도 無益한 것이 아니리라。

이달의 작품에서 趙廷來의 〈회색의 땅〉(文學思想)、崔仁浩의 〈위대한 遺産〉(小說文學)、李東河의 〈개사냥〉(小說文學)을 평가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회색의 땅〉은 전쟁의 정신적인 外傷이 남기고있는 相續性을 제시한 가운데 恨이 지닌 인간관계의 긴장과 연쇄원리및 이의克服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따라서 작품에서 전개되고있는 시간성은 6·25에서 현재까지 걸쳐있다。이 시간속에 父子의두세대를 등장시킴으로써 먼저父代에 이루어진 罪過의 因果關係가 오늘에까지 어떻게 상속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추적하고있다。7년간을 고학하면서 대학을나와 출세하기를 갈망해온 아들은스스로의 過誤때문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과오때문에 여러번의 사회진출직전에서 좌절을 경험하게된다。전쟁 동안에 저지르게된 아버지의죄과의 상속성이 그의 신원조회상 하자를 남기기 때문이다。그래서 아들은 극단적으로 아버지를 憎惡할 뿐 아니라 자기학대에까지 빠진다。심지어는 그의 부친이 사망하였을 때조차도 단 한 방울의 눈물마저도 떨어뜨리기를 거부한다。그러나 이런 父子間의극단적인 긴장관계는 아버지의 과오가 싫은 사상의 반역성과는 관계도없이 한풀이 굿에서 연유되었음을 이해하는 순간 끝내 해소되게 된다。아버지는 가난한 常民으로 태어나 어쩌다가 金氏문중의 딸과 정을통하다가 그것이 알려짐으로써 김씨네 장정들에게 잡혀 극단적인 私刑을받고 그 사실때문에 恨에 맺히게 된다。그래서 전쟁이 터졌을때 그는 이 한을 풀기위해서 賤이대신 주창을 들었던것이지만 그것이 대를물려 또다른 한을 파생시키게되었던 것이다。

결국 잘못된 한풀이가 빚은 비극이 또하나의 다른 한을 거듭 가져온다는 恨의 순환적인 연쇄와 유전적 비극파악을 근거로 이의 극복을 다룬 것이다。

崔仁浩의〈위대한遺産〉역시 父性에대한 아들의반역과 이에서 생기는 양자의 분열이 결과적으로 해소·화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앞서의작품과 유사하다。

그러나〈위대한 遺産〉은 특유한 갈등의 무게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해 주고있다。그것은 額子의 틀속에 담고있는 褪色하지 않는 挿畵와도같은 내부이야기가지닌 갈등의 농도때문에서다。주인공이며 叙述者이기도한〈나〉는 幼年期를 회상한다。그런데 이 유년의 記憶은 전쟁과 避難體驗과 같은 음침하고 우울한내용과 無氣力한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심리만으로 점철되어있다。이러한 틀속에서〈나〉는 유독 아름다운 한폭의 삽화를담고있는데 전쟁으로 주정뱅이 폐인이된 그의아버지가 단한번 아들에게지켜준 約束履行의 이야기가 그것이다。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안〈나〉는 서커스단의 자전거를 타보는것을 유일한소망으로 삼고있다。그런데 참담한敗北者였던 아버지는 이런아들의소망을 꼭 성취시켜준다고 약속하고는 그가가졌던 모든것을 팔아서 약속을 지켜준다。

위대한 유산이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절대의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정신적인것임을암시하고있다。

李東河의〈개사냥〉은 유년의 체험환기에 의해서 의식에서 風化되지않은 전쟁의 그림자를 포착한가운데,전쟁이 지닌 폭력성과 非人間化현상을 다룬 작품이다。

「우리」라는 어린이들의 집단적이고 複數的인視點을 통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어른의 세계를 관찰하는 형식을취한 이 작품은 표제가 암시하고 있는 바대로 전쟁의 파괴력앞에서 인간성이 극단적으로 잔혹해지고 獸性化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趙廷來의「회색의땅」父子 두世代에 걸친 因果추적

◇崔仁浩씨

◇李東河씨

◇趙廷來씨

앞세대에대한 증오와 탈출이 希望으로
崔仁浩의「위대한유산」 李東河의「개사냥」
戰爭의 폭력성과 非人間化 현상 해부

"歌曲은 곧 人生이야기"

演奏會 300회 기록한 테너 安亨一씨

30대에 첫무대…오페라主役만 40여회
"노래할땐 모든 고뇌 다 잊어"

◇연주회 3백회를기록한 테너安亨一씨。환갑때까지 무대에 설 자신이있다고말한다。

테너 安亨一씨(56)는『무대에서면 그렇게 행복할수가 없다』는 타고난 뮤직·맨이다。지난6월초 서울서 열렸던 韓·中친선음악회 연주로 연주회 3백회를기록한 그는 테너가수로서는 가장많은 연주횟수를쌓은 성악가로 꼽힌다。테너는 높은音을 많이내기때문에 음악壽命이 비교적 짧은것이 通例인데, 그는오십이 넘어 오히려 더욱 좋은 평을받는 목소리를가지고 여전히 오페라 주역가수로 당당하게 무대를밟고있는 重鎭이다。

『똑같은 곡목이라도 10년전에 부른것과 지금부른 것은 상당히 달라요。청중들의 반응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난번 3백회 연주회 때는 청중들이「소리가 더 좋아졌다」고 평해주더군요。그 칭찬은 저에게 듣기 좋으라고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소리만 잘내려고 노력했던 반면, 요즘은 노래하려는 작품의 내용을 잘 표현하려고 애쓰지요』

安亨一씨는 맑고 싱그러운 목소리를 가진 서정적인 리릭·테너로「라·보엠」의 루돌프,「람메르무어의 루치아」중 에드거·알도,「리골레토」의 만투바공작은 거의 단골로 맡는 배역이다。이제까지「라·보엠」의 루돌프를 5회,「카르멘」3회,「리골레토」2회등 모두 40여회에걸쳐 오페라 주역 가수로 노래해, 72년에 대한민국예술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무대에서면 제일행복해, 그 이상 아무 것도 바랄게 없어지는 상태」에 이른다。노래하고 나서 스스로「잘 불렀다」고 생각될 때는「세상에서 둘도 없는 快感」을 느낀다。

平北 定州中學3학년시절 그의 운명에 끼어든 한 음악교사가 없었으면 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그대로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교사는 거의 강요에가깝게「너는성악가가돼야 한다」고 당부했어요。지금처럼 레슨비같은걸 받는것도 아니고 도리어 부모님의 질시를받으며 붙잡아앉히고 가르쳐 주셨어요。그후부터「나는 노래를해야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무작정 서울로와 자리를잡았지요。처음3년간은 우선 먹고 자는 문제에 부딪쳐 온갖 지독한 고생을 다했어요。그고생은 제입으로 털어놓기가 차마 부끄러워 덮어두고 싶어요』

그는 몸둘곳 하나 없는 서울에서 추녀 밑에서 자보기도, 남의 판잣집에서 이불없이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기도 했다。남대문 시장에서 바지를들고 다니며 팔아보기도, 길가에 앉아 밥장사, 담배장사, 신문팔이를 하기도했다。그렇게 고생고생하며 모은 한푼의 돈으로 3년후에 간신히 서울音大에 입학했다。

대학에 다니는동안에도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위해 밥장사 담배장사 신문팔이를 4년간 계속해야했다。이때문에 그의 악단데뷔도다른 음악가들보다 늦어져 31세에「리골레토」에 첫 출연했다。지난62년 국립오페라단 창단과함께 오페라단원이돼 20년간 리딩·싱거로 일해왔다。10여년전 우리나라악계에 한국가곡붐이 일어났을때 가곡 운동에도 열심히 참가해 국내외를 돌며 歌曲연주회를 자주 열었다。그가 부르는 우리 가곡은 화려한 音色을 삼가며 가곡에 담긴 인생이야기를 설득력있게 說破하는 특징을 지녔다는 평을 듣고있다。

그는 자신이 노래부를수있을때까지는「이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을가진 사람」으로 느낀다。

그는 25년간 음악을해오며「음악은 어느누구도 해치지 않는것」이라는 한가지 믿음을 얻었다。그리고 음악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게하는힘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그런힘이 있게되는것인지 그이유는 아직도 모르고있다。그는「음악이가진 힘의 비밀은 아마 끝까지 벗겨지지 않을것」이라고 말한다。현재 서울音大 성악과장, 이탈리아가곡연구회회장, 국립오페라단원등으로 일하고 있다。

【吳桂淑기자】

사랑방

흰옷즐겨입고 固有풍습 지켜
延邊은 第2의 한국
中共誌가 보도한 韓人社會

환경은 달라져도 피는 속일수 없는것인가。祖國과 격리되어 40년가까이 살았어도 중공 동북지방에 사는 韓人들의 풍습은 별로 달라진게 없다。

최근 이곳에서 입수된 2개의 중공잡지가 전하는 長白山脈기슭의 延邊자치구 韓人사회에 관한 원색화보와 특집기사는 우리고유의 풍습대로 중공에서 살아가고있는 동포들의 삶을 단편이나마 엿볼수있게 해주었다。

韓人들의 생활상을 보도한 잡지는 중공 에스페란토 연맹에서 발행하는 월간 엘·포플라·치니오(中國人民일명 中國報道)誌 82년4월호와 월간 英字誌 위민·오브·차이나(中國婦女)誌。그중에서도 특히 엘·포플라·치니오는 표지에 한복차림 여인의 빨래하는 모습을 담고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이잡지에 따르면 현재 中共에 살고있는 韓人은 모두 약1백68만명에 이른다。그들은 주로 吉林·黑龍江및遼寧省에 살고있으며 그중에서도 吉林省延邊 韓人自治區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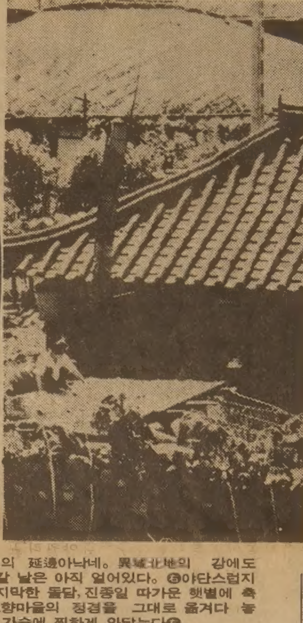
延邊自治區의 한인사회를 묘사한 기사를 보면 마치 그 옛날 한민족을 기록한 옛中國史書를 보는듯한 느낌이다。

『韓人은 흰옷입기를 좋아하며 여인은 흰 저고리와 긴 치마,남자는 외출시 가슴에 옷고름이 달린 두루마기를 입는다。또 그들은 춤과 노래를 좋아하여 명절때는 악기를 즐겨 연주한다。북소리장단에 맞춰 남녀노소할것없이 모두 흥겹게 춤추는 모습은 한인사회에서나 볼수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또한 중공기자의 붓끝에 우리말로 응답할정도로 그들은 모두 아직까지도 우리말을사용하고있으며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상대자로 한인처녀들만을 찾고있다고 한다。

이들의 주식은 밥。그래서 보리나 조대신 쌀을 경작,이곳을 중공북부의 유명한 쌀산지로 만든 한인들은 떡·냉면·된장국·김치·깍두기·생강·고추등을즐겨먹는다。

【홍콩=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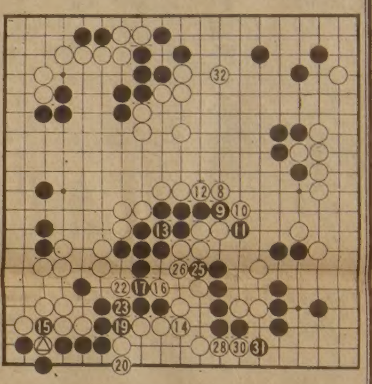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한복차림의 延邊아낙네。異域만리의 강에도 얼음은 풀렸는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날은 아직 얼어있다。㊦야단스럽지 않은 한국식 기와집, 그리고 초가집, 나지막한 돌담, 진종일 따가운 햇볕에 축 늘어진 해바라기, 뜰에 널려있는 고추, 고향마을의 정경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그곳 韓人들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다㊦。 【홍콩=聯】

제13기 名人戰 挑战5番棋

第2局第9譜 108~132 (각5시간·덤5집반)

白(名 人)曺薰鉉〈1勝〉
黑(挑戰者)徐奉洙〈1敗〉



제1국은 종반에가서 양쪽이 모두 초읽기에 몰렸었다。그러나 名人은승리 거의 결정적이고 도전자는 1분바둑의 절대절명인 무렵이었기때문에 名人쪽이여유가 만만했다。『시간이넉넉했더라면 최후의 찬스를 놓치진 않았을것』이라는 뉘우침이 씻기지않은탓일까。이바둑에서 도전자는 상대의 반박에 시간을 쓰지않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절박해져서는 뒤늦게나마 충분한 시간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白8의 장문수를 당한 도전자는 25분을 고심한끝에 黑9、11로 강하게 째고 왔었다。자충수를 두는격이지만

黑大馬 겨우 完生

일전불사의 태도를 취할밖에 없다。

그리고 이뒤는 이미 보아둔 대로의 수순인까닭에 서로가 노타임、문자그대로 불꽃튀기는 공방전이다。

하지만 黑으로서는 때가놓은 감이 짙었다。우선 白12로서 그간에 활루지였던 어복이 삽시에 두터운 보가로 불어나서 이제는 굳이 黑대마를 잡지 않더라도 白의우세가 현저하게 드러나 보인다。

입장이 뒤바뀐것으로는 좌하귀의 패도있다。원래 黑15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면 白을 잡을수도있는 黑의 노리개패였던 곳인데 지금은 오히려 黑이 살겠다는 패로 변하고 말았다。다만 白은팻감이 부족하다。白28、30 정도로 협상해도 삼변을 白32에 선착하여 이것으로 완전한역전이다。

18、21、24、27…패。29…△이음。

【一凡】

구독신청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149>

응달 ⑳

오목이는 그때 인재얘기를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아니 꼭 해야된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일환이는 오목이를 거칠게 끌어당겨 제 가슴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다。

『말 안해도 돼。어서 아무소리 말고 잠이나 자둬。날이 밝으면 할 일이 많으니까。네가 뭐래도 난 널 책임질테야』

오목이는 그의 완강한 가슴으로 입이 틀어막힌 채 귀 기울였다。그의 힘찬 심장 뛰는 소리가 그리워 가만히 귀 기울였다。

그러나 곧 튀어나올 듯이 벅차게 뛰던 그의 심장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고 대신 그가 몸 전체로 피곤해 뒤채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오목이는 문득「온누이의 집」에 있을때 유원장이 몸보신을위해 사온 잉어를 요리할 생각이 났다。잉어는 도마에 오른 뒤에도 싱싱하게 날뛰었다。마치 생명 그 자체처럼 아름답고 힘이 센 잉어였다。산소의 결핍이 오래됨에따라 잉어는 점점 더 괴롭게 몸을 뒤쳐였다。

그의 뭔가 억압된듯한 괴로운 몸짓에서 처절하게 뒤채던 잉어의 몸부림을 떠올릴 게 뭐였을까。

「아아 오빠」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봉쇄된 입으로 이렇게 신음했다。

도마위의 잉어처럼 뒤채는 일환이가 못견디게 슬퍼 마음을 쥐어짜는듯했지만 눈물은 나지않았다。

『날이 밝으면 할 일이 많아。우선 방을 얻어야잖아。나도 방 얻을 돈쯤은 있어。그렇지만 너도 춘자네는 한번 다녀와야해。춘자네 집도 있을테고 또 춘자한테 우리가 살림 차린다는 얘기도 해야지。숨길 거 없잖아。아마 순식간에 고아원 친구들 사이에 좍 퍼질걸。춘자는 마이크니까。우리 자리 잡으면 걔네들을 다 청해다가 잔치 한번 하자。결혼식 대신으로 네가 원한다면 그때 면사포도 쓰지뭐。그건 나중 얘기고 방만 얻는다고 다가 아니거든。내가 워낙 빈털터리라 살게 많아。쌀이랑 연탄이랑 먹을 그릇이랑 이부자리랑 덮고잘 이부자리랑。내 돈으로 모자라면 네 돈을 빌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빌리긴。이부자린 원래 신부 쪽에서 장만하는 거야』

오목이가 비로소 일환이 가슴을 밀어내고 말했다。

『그걸 누가 모르냐。그렇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이부자리 장만하는 신부가어디있다든。우린 다 우리가 손수 해야돼。그러니 얼마나 바쁘겠냐。내일부터 네가 밥짓고 콩나물국 끓일줄 알지?아무리 바빠도 라면으로 대신할 생각일랑 말아。내가 너한테 번번이 라면만 먹였다고 행여 내가 라면좋아하는줄 알지마。죽지못해 먹는거야。고약한 버릇이야 하고。피난시절에 너보다 어렸을 때 그때 넌 니?잘 생각나지않겠구나。난 그때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 있었는데 허구헌날 구호품 통조림에 물 붓고 부글부글 끓이다가 역시 구호품밀가루로 수제비 떠넣은걸로 세끼를 때웠다。물론 기름기도 고기 먹기도 충분했어。세상이 온통 주리고 더군다나 육기(肉氣)라면 눈이 뒤집힌 피난때라 고아원아이들이 굶어죽지않고 목숨부지하는것만도 사람들 눈엔 신기해보였겠지만 천만에。우린 육기에 넌더리가 나게 잘 먹었다구나』

일환이가 객적게 으스댔다。

한국일보

533－2361

流星의 賦

<42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⑱

김금단의 말은 또박또박하고 순서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놈에게 붙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계남의 옆에서 조인식이 말했다。

김금단은「훙」하고 코웃음을 치는 표정으로 되더니

『왜놈의 힘이라도 빌지 않고 어떻게 무력한 여자가 부모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소이까。놈들의 힘을 빌지 않고 어느 귀신에게 호소해야 된단 말이옵니까。수령을 비롯하여 대관들이 있다고 하나 그들에게 소녀의 충정을 호소할 방도가 있겠읍니까。설혹 호소했다고 해도 같은 양반들이라 초록은 동색이어서 되려 화만 당할 것이 아니옵니까』

『네 아녀자의 분을 풀기위해 나라를 반역한 그따위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용납될 줄 아느냐』

고 조인식이 소리를 높였다。

『나라를 위하는데 양반들이면 족합니다。미천한 우리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소녀로선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면 그만입니다。나라의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나라가 우리들에게 뭣을 했기에 우리 주제에 나라를 위해야 한단 말입니까。나라는 우리에게 종의 신분을 주었고, 그 신분 때문에 개나 돼지처럼 우리는 살았읍니다。그것도 분한데 아버지는 옳은 말을 했다는 죄로 맞아 죽었읍니다。어머니는 아버지의 참사를 비통해 한 나머지 홧병으로 죽었읍니다。내 오라버니는 나를 두고 도망도 치지 못해 본의 아닌 종노릇을 하는 동안 매일처럼 매질을 당하는 학대를 받았읍니다。그리고 소녀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놀림감으로 갖은 수모를 다 겪었읍니다。그런 소녀에게 정절을 물어요? 짐승만도 못한 양반들의 패륜엔 눈을 감고 소녀의 부역만을 따져요?』

말이 이에 이르자 조인식이 말문이 막힌듯 버럭 고함을 질렀다。

『요사한 년이 입만 까가지고 발라넘기는구나。회개함이 없을까?』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백만번 다시 살아나도 이런 꼴을 당하면 소녀는 똑 같은 행동을 할 따름입니다』

홍계남이 복잡한 감정을 정돈할 수가 없어 한마디 끼었다。

『잘못 했다고 해라。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엔 동정을 불금하나 왜놈과 내통해서 동족에게 화를 입힌 사실은 나쁘지 않은가。그 점을 뉘우치기만 하면 네 생명은 구해주리다』

홍계남의 그말엔 약간의 갈등이 있은듯 김금단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그러나 김금단은 얼굴을 꼿꼿이 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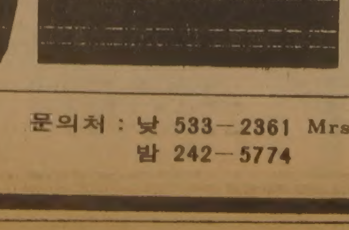
『소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셈이지,이 이상 여한이 없읍니다。살아있을 필요도 없읍니다。지금부터 할일은 국법에 의해 처단을 받는 일입니다。소녀는 국법을 어긴죄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각오하고 있읍니다。제게 지금 소원이 있으면 빨리 죽여줍소사 하는것 뿐입니다』

그 너무나 이로가 정연한 말에 만좌는 조용했다。멀고 가까운 설경(雪景)속에 햇빛이 비치는데 김금단은 그말을 최후로 무슨말을 물어도 다신 입을열지 않았다。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할
"한 국 일 보"
(THE KOREA TIMES TORONTO) 를
잊지 마십시요.

주6일 발행(금·토요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 월 $9, 6개월 $50, 연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 화 : (416)533－2361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 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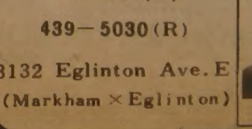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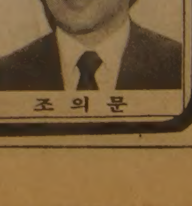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
AVENUE, 벤트럭, USED·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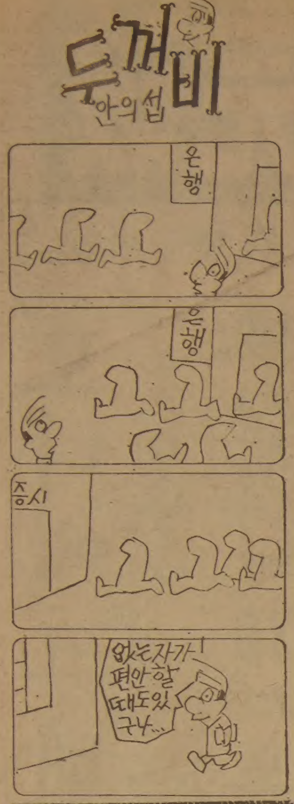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 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男女혼성 億臺도박단 적발

光州 教授부인도 끼어… 7명令狀

【光州】光州지검 수사과는 29일 대학교수 부인과 국교 교감 부인등이 낀 남녀 억대 도박단을 적발, 도박전과 4범 秋丙錫씨(50·光州市東區錦洞141)와 도박전과 2범인 가정주부 閔惠淑씨(53·여·光州市西區內防洞836의50) 金福順씨(42·여·도박전과 2범·光州市東區芝山洞443의14)등 남녀 7명을 도박개장및 상습도박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李南順씨(49·여·光州市西區芳林洞48의16)등 5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도주한 吳良禮씨(45·여·주거부정)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8일상오 11시부터 하오5시까지 光州市北區斗岩洞191 黎鳳順씨(51·여)집 안방에서 판돈 1백24만여원을 놓고 속칭 삼봉도박을 하다가 검거됐는데 지난 3월15일부터 지금까지 가정집과 여관등지를 돌면서 70여회에 걸쳐 매회에 1만~2백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여 1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도박전과 4범인 秋씨는 지난해5월 光州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사귄 閔씨와 金씨를 통해 가정주부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10만~50만원씩의 노름돈을 대주고 즉석에서 1할의 선이자와 5백끗의 승부가 날때마다 1천원을 뜯어 지금까지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추병석▲민혜숙▲김복순▲양봉순 ▲河順子(42·光州市北區斗岩洞666의5·모국교 교감부인)▲池香順(29·光州市西區상무동·모대학교수부인)▲成玉一(41·光州市北區東雲洞)【韓】

藥師會 全國대의원 오늘下午 임시總會

보사부는 29일 李昌紀약무식품국장을 대한약사회에 파견, 대한약사회 집행부및 시도 지부장, 서울시 약사회 본회장단과 두차례에걸쳐 간담회를갖고 의약분업에관한 보사부방침을 전달하면서 약사회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李국장은 간담회에서『오는 7월1일부터 木浦등 3개지역에서 2종의료보험이 실시되는것을 전제로 석달동안 임의분업을 실시해 나타나는문제점을 파악, 앞으로 구성할 의약협의체를통해 이를 조정해 나간다는것이 보사부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측은 『2종 보험실시이전에 협의체를 먼저 구성, 보험실시기간과 실시에 따른 세부방침을 정한후 보험을 실시해야할것』이라고 주장하고또『木浦에서 3개월간 임의분업을 실시, 의사들이 처방전을 최대한으로 발행한다해도 그결과 만을 토대로 전국에 임의분업을 확대실시할수는 없을것이므로 임의분업을 전제로한 협의체구성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하오3시10분부터 약사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시도지부장, 서울본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30일하오2시 전국대의원임시 총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油槽船과 부딪친 소형船舶 침몰

【木浦】29일 새벽4시께 전남珍島郡鳥島面上馬島 북쪽 2마일 해상에서 부산 신양유조소속 대양호(3백44톤·선장 朴成男·39)가 선적미상의 소형선박과 충돌, 소형선박이 침몰했다。

해경은 경비정 3척을 사고해역에 급파,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사고해상에서 침몰된 소형선박의 것으로보이는 기름통과 물통등만 발견했을뿐 선체와 선원들은 찾지 못하고 있다。【韓】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제7협동號 失踪 7일째

【東草】선원 27명을 태우고 귀항도중 연락이 끊긴 東草수협소속 제7협동호(55·84톤·선장 이종나·31)가 86시간이 지난 29일 상오7시 현재까지 행방불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東草지구 해양경찰대는 해군의 지원으로 연3일째 항공기등을 동원,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협동호는 발견치못했다。【韓】

地下식당 가스爆發

새벽 담무너져 女主人압사 2명부상

29일 새벽3시10분께 서울城東區聖水洞2街203의5 聖水빌딩 지하식당 돼지집(주인 金淸子·39)에서 LP가스가폭발, 주인 金씨가 무너진 콘크리트슬라브에 깔려숨지고 2층길다방 종업원 安貞淑양(27)등 2명이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었다。

이사고로 1층슬라브 4평과 3평크기의 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폭발때의 진동으로 이웃 멋장이양복점 논노슈즈 살롱 연립상회등 유리창50여장이 박살났다。

경찰은 숨진 金씨의 머리맡에 선풍기코드가 꽂혀있고、가스레인지의 스위치와 20㎏들이 LP가스통의 밸브가열려있음을 확인, 누출된가스가 지하실바닥에 깔려있다가 金씨가 더위를 쫓기위해 선풍기코드를 꽂는순간 전기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폭발한것으로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婦女子8명 농락 1명殺害

30代前科8犯구속 凶器휘둘러 金品도 강탈

【光州】전남 光山경찰서는 9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녀자 8명을 농락하고 그중 1명을 살해한 李正基(30·충남牙山郡靈仁面蒼龍里39의34)를 살인및 강도 강간치상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등 전과8범인 李는 지난74년4월6일 서울행 완행열차에서 알게된 간호원 嚴모양(당시22세·浦項市鶴山洞)을 충남牙山郡溫陽역전 온양여관으로 유인, 욕을 보인뒤 다음날 새벽3시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핸드백속에 들어있던 현금10만원을 갈취해 달아났으며 지난5월4일 새벽3시께는 경남梁山郡 원동부락뒷산 수암사에서 불공을 드리고 나오던 유모여인(46·경남梁山郡勿禁面)과 송모여인(59·釜山市中區양명동)등 2명을 산속으로 끌고가 각각 욕을 보인뒤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이들의 머리를 7~8회씩 때려 실신시키고 현금17만8천원을 빼앗아달아났다。

또 지난5월27일 하오4시께는 전남長城郡長城邑 밤나무밭에서 일하고있던 이마을 박모여인(41)을 인근으로 끌고가 반항하면 죽인다고 위협, 욕을보이고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키고 달아나는등 지금까지 5회에걸쳐 부녀자8명을 농락한 혐의이다。

범인李는 28일밤10시께 전남光山郡松汀邑남계리 사개부락에서 길가던 정모여인(50)과 박모양(20)등 여자2명을 5백여m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가던중 박양이 도망쳐 인근파출소에 신고해검거됐다。【韓】

◇전국을돌며 부녀자들을 농락하고 살해까지 일삼은 李正基【韓】

政府米 千가마 훔쳐

1명拘束、務安·靈岩·昇州등 16곳털어

【長興】전남長興경찰서는 29일 3년동안 정부양곡 1천4백여가마(싯가 3천4백26만원)를 훔쳐 팔아온 전영배씨(39·전남長興郡長興邑水田里)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미 구속된 하수인 전용배(30·濟州市1洞1용147 9)한점근씨(26·釜山市東區佐川4동)등과 함께 지난 3월8일 새벽3시께 전남康津郡七良面冬栢里 七良단협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들어가 벼1백10가마를 훔친것을 비롯 80년1월부터 지금까지 務安·靈岩·昇州·緇州·咸平·寶城·康津등 전남도내 7개군 16개소의 농협및 개인소유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1천4백46가마를 훔쳐 팔아온 혐의이다。

이들은 밤11시부터 새벽3시사이 외딴곳에 있는 정부양곡창고만을 골라 절단기로 창고열쇠를 자른뒤 화물트럭까지 동원、양곡을 훔쳐왔는데 양곡을 도난당한 농협이나 개인창고업자들은 도난사실이 드러나면 창고업허가가 취소될것을 우려 단한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韓】

寺刹대지 팔아 3億원 가로채

前榮華寺 사무장

서울시경은 28일 대한불교 조계종소속사찰인 榮華寺소유 대지를 몰래 팔아 그대금중 거액을 가로챈 전榮華寺 사무장 申鳳均씨(57·恩平區鷹岩洞95의15)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申씨는 지난 79년11월20일 사무장으로 있을때 전주지인 姜모씨와 짜고 榮華寺소유대지 1천5백63평(싯가 3억1천5백만원)을 李모씨에게 팔아 대금중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한국일보

新安 중학생50여명 손발마비 집단怪疾

【木浦】전남新安郡荷衣面熊谷里에있는 荷衣中(교장 金大雄) 1·2학년학생 50여명이 집단으로 손발이 마비되고 심한 구토증세를 일으키는 괴질을 앓고있다。

전남新安郡교육청에 따르면 동교1년 신영희양(16)등 52명은 지난28일 상오 학교운동장에서 아침조회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간후 갑자기 이같은 증세가 발병했는데 2학년 鄭珍姬양(17)등 4명은 29일하오현재까지 증상이 심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중이다。【韓】

5行뉴스

◇大學生 해외연수 줄고있다

대학생 해외연수 지망자가 줄어들어 檀國大、成大、同德여대、誠信여대、祥明여대、建大등 서울시내대부분 대학이 연수계획취소。

◇가톨릭原州教區創設기념식

【堤川】가톨릭 原州교구 창설 18주년기념과 성지배론 건물 축성식이 29일상오11시 충북 堤原郡鳳陽面九龍里 베론성지에서 池學淳원주교구장과 김남수 水原교구장등 신부30여명、신자 2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利川늑대는 野生化된 들개

【城南】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利川郡雪星面일대에 자주나타나 주민과 가축을 괴롭혀온 늑대들중 1마리가 29일상오 雪星面長泉4里야산에 다시나타났다가 이마을 김영기씨(29)에 의해 공기총으로 사살됐는데 잡고보니 야생화된 들개였다。

◇不渡수표 2億남발 구속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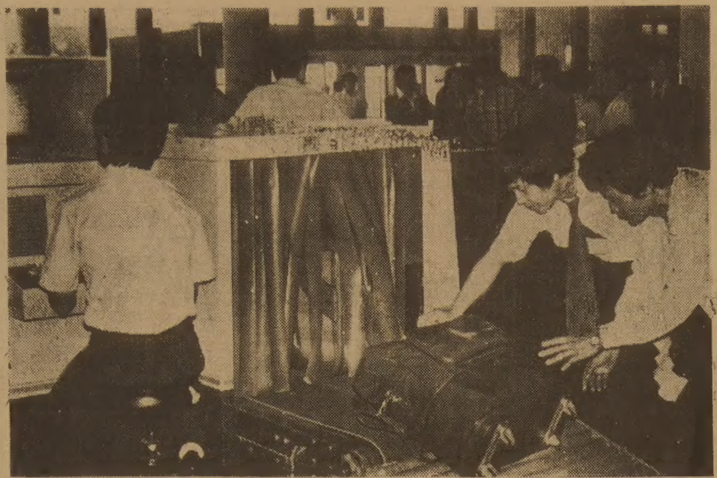
【釜山】부산 南部경찰서는 28일 2억6만원상당의 부도수표를 남발한 김중근씨(45·南區廣安洞1025의6)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아내家出…자기집에 放火

【木浦】전남咸平경찰서는 29일 집을나간 내연의처를 못찾은데 앙심을품고 자기집에 불을지른 송재덕씨(32·咸平郡海保面海保里)를 방화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深夜를 찢는 굉음…빈번한 離着陸

짜증스런 地上서비스



◇金浦공항에도 심야에 비행기 이착륙이 늘고있다. 밤비행기는 승객에겐 편할지모르나 공항직원에겐 짜증스런 손님이다。

승객 쏟아지면 마치 "장터"

쥐꼬리夜勤수당 士氣저하

門은 활짝열렸지만 「24시간운영體制」는 水準이하

올빼미 空港

새벽에 사는 사람들

通禁철폐 이후의 새 風俗圖 ②

29일 새벽1시10분 어둠이 짙게깔린 金浦공항에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점보기가 착륙했다。취리히로부터 승객3백57명을 태우고 20여시간을 비행한끝에 올빼미같이 야밤에 金浦에도착한 KAL904편이다。

거대한 점보기에서 승객이 쏟아져나오자 유령의 집같이 조용하던 공항은 갑자기 승객과 공항직원이 뒤범벅이돼 법석을 떨어대기 시작했다。

통금이 있던 지난해까지만해도 金浦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 아닐수 없다。

한데 장시간 여행에서 풀려난 승객들은 홀가분한기분인듯 한데 공항의 지상서비스직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다。

통금해제 이후 金浦공항 공역(空域)도 심야에 열려 야간 항공기운항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세관、출입국 관리사무소、검역소등 지상서비스업무체제가 이를 따라가지못하고 있는것。통금이 해제됐어도 金浦공항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공역통금시간으로 되어있지만 항공기의 정비 기상관계로 인한 심야운항이 불가피할 때에는 이·착륙이 허용되고있어 사실상 공역은 24시간 열린 셈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금년 1월이후 국제선여객기26편、화물기85편이 밤10시이후에 도착해 이제金浦공항도 외국 공항과 같이 「올빼미에어포트」가 돼가고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金浦공항에 내린 승객들이 서울등지로 연결되는 시내버스는 밤10시이후에 金浦공항에 들어오지않아 항공사가 임시로 마련한 버스를타거나 2~3시간씩 기다려 택시를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보통 심야에 비행기가 착륙하면 승객들을 통관시키기 위해 입국장에는 출입국관리직원20명、세관직원70여명이 배치되나 피로에지친 이들의 짜증때문에 수속이늦어져 승객의 입국수속은 평소보다 1시간 더디게끝나는게보통。

똑같은야간근무자이지만 이들 출입국관리직원들은 죄지은사람처럼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직원의 눈치를 살펴야하는게 金浦의 현실이기도하다。

지난76년4월부터 공항근무 공무원에게 3만5천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있으나 어쩌다 밤샘을 하는날이면 택시를 타고 귀가해도3천원이상이 들고게다가야식도사먹어야되니 어림도없는액수다。

외국의 경우는 비행기가 심야에 이·착륙을 하게될경우 항공사에서 공항근무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관례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같은 제도가 없을뿐아니라 간혹 KAL에서 식대라도 지불하려해도 공무원 부조리케이스에 걸릴까봐 서로가 눈치를 보느라고 받지를 않는다。

이같은 야간근무수당을 항공사가부담하는나라는미국、유럽지역、필리핀등이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월급의 두세배가 넘는 경우도 있어 서로 심야근무를 자원할 정도. 따라서 공항직원의 승객에대한 서비스는 좋아질수밖에 없다。

金浦에 취항하고 있는 NWA·CPA같은 외국항공사들은『한국정부에서 항공사에 왜 시간외근무수당을 요구하지 않느냐』며 되려 의아해하고있다。

심야교대근무를 제대로 하려면 출입국관리소입구 사열직원 전산실요원등 최소한 50여명이 근무해야되며 세관은 검사직원、감시직원등 30여명、기타서비스 업무분야직원 1백여명등 2백50여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휴게시설은 전혀 마련돼있지않고 야간근무의 허기를 달랠 식당도 없다。

金浦세관의 경우 현재 3백73명의 인원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항24시간운영체제에 들어갈 경우 1백46명이 더 필요하다는것。

이같은 사정은 출입국관리소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2백30명의 직원이 2교대로 근무하고있으나 1백명이 증원돼 3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는것。

공항관계자는 현재 공항청사를 관리하고있는 관리공단이 임대료수입에만 매달려 매점、식당등 편의시설 공간을 내줘야 할 사무실면적이 좁다면서 88서울올림픽개최 이전에 『공항24시간운영체제』를 빨리 갖춰야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李鎭기자】

貞女1호 圓佛教입문 60년…金永信법사

"자비와 無我奉公의 정신을…"

명문여학교출신인 양가의 규수로 우연한 기회에 원불교에 입문, 평생을 엄한 계율속에서 독신으로 살아오고있는 원불교 貞女1호 金永信법사(75·사진)를 전북裡里市北一洞 원불교중앙총부 수양원에서 만나본것은 전혀 우연이었다。

17세의 꽃다운 소녀시절 順德이란 이름으로 원불교에 입교한 그녀는 60년간교화사업에 힘쓴 공로와 교전의 깊은 연구로 大覺의 경지에 이르러 종법사로부터 融陀圓 金永信법사란 법호와 법명을받아 6백여 貞女의 어머니가된사람。

金법사가 정녀의길을택한것은 뜻밖의사고가 계기였다。

경기여고의 전신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때인 1924년가을 그녀는 서울시내 한도육상대회에서 1등으로 골인하는순간 넘어져 얼굴에 깊은흉터를얻었다。꿈많던소녀에게 마음속에 큰흉터를 얻은것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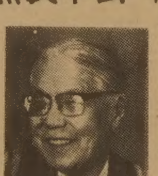
그때 그녀는 지부설립을 위해 상경한 원불교창시자 朴重彬대종사를 만나게됐고 그의 설법에 감명을 받아 2년후 졸업과동시에 정녀가 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1년에 6개월간 冬禪과 夏禪으로 수련을하고 새벽좌선、저녁염불、낮엔 회합과 강연을 들으며 종단업무도 겸직하는 각고의 22년이 지난 46년에 그녀는 비로소 貞女式을 갖고 첫번째 정녀가 됐었다。

金법사는 貞女가된날 너무 기뻐서 온종일 숙사에서 혼자 울었다고 회상했다。

이때 金법사는 집에서 가져와 입던 옥색치마와 분홍저고리를 벗고 스스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검정치마와 흰저고리를 입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원불교 정녀복장으로 이어진다。

『우연히 성현을 만나 내뜻을 모두 이뤘고 더큰 진리를 깨달았으니 일생에 회한이 있을수없다』는 金법사는 원불교를 불교의 한갈래로 잘못아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다。



원불교도 불법에서 연원하지만 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하여 독자적 교리와 신앙의식체계를 갖고 독립된 교단을 가진 새로운 종교。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는 불교와 바라문교、기독교와 유태교의 관계로 비추어 생각하면된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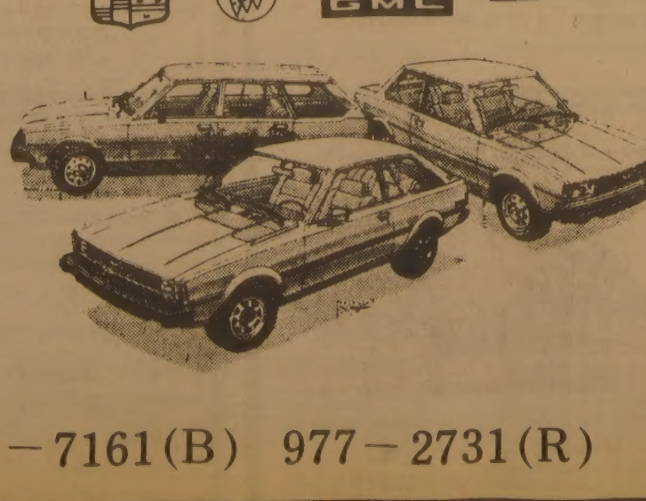
金법사는 『요즘 젊은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고 쉽게 살려고 한다』며 『자비와 無我奉公의 정신만이 밝은사회를 이룩한다』고 강조했다。【裡里=申鉉鈺기자】

Grant Brown 교민을 위한 여름 특별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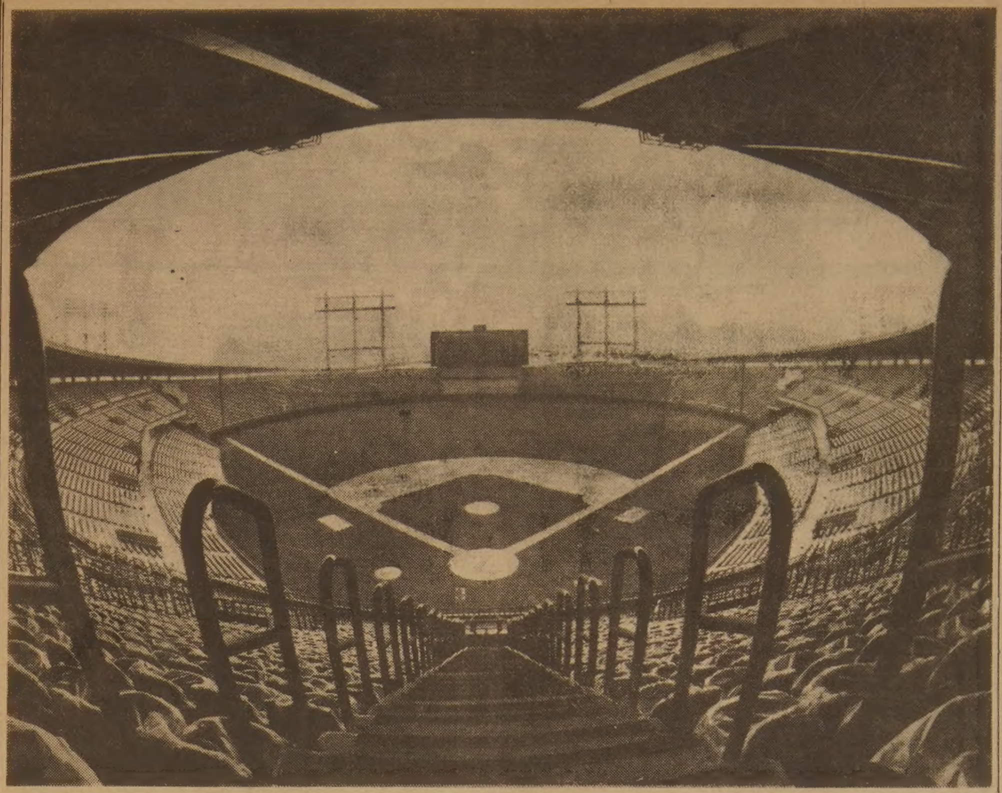
세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GM GMC



1575 WESTON RD. WESTON ☎ : 247-7161(B) 977-2731(R)



웅장한 모습 드러낸 綜運 야구場

◇서울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총공사비 1백26억원을 투입한 이 야구장은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건물로 5만명(좌석 3만5천, 입석 1만5천명)을 수용할수 있다。 80년 4월 착공, 2년3개월만에 완공됐다。

波、벨기에 完破

2次리그도 첫날부터 異變

월드컵축구

보니에크、해트트릭

佛 장기니、30m 프리킥

墺제압… 24년만에 4強발돋움

【마드리드 28日=聯合】제12회 월드컵 축구대회 2차리그가 29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개막, 프랑스(D조)와 폴란드(A조)가 첫 승리를 올렸다。

폴란드는 바르셀로나 누캄프경기장서 벌어진 2차리그 A조 첫경기에서 FW즈비그뉴·보니에크(26)가 해트트릭(3골)을 기록하는 수훈으로 강호 벨기에를 3—0으로 완파, 파란을 일으켰다。

폴란드는 7월5일 蘇聯을 꺾으면 대망의 4강전에 오르게된다。

한편 마드리드 칼데론 경기장서 벌어진 D조경기에서 프랑스는 전반40분 베르나르·장기니가 총알같은 프리킥으로 결승점을 올려 오스트리아를 1—0으로 제압, 58년 월드컵이후 24년만에 4強에 진출할수있는 기회를 잡게되었다。 프랑스는 5일 北아일랜드와 대결하는데, 지난5월 친선경기에서 프랑스는 北아일랜드를 4—0으로 물리친바있다。

2차리그서 1패를 기록한 나라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의 준결승진출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내년 시즌 이탈리아의 명문 프로 유벤투스 입단 예정인 보니에크는 4분 27분 53분에 연속골을 터뜨려 키스(헝가리) 루메니게(서독)에 이어서 이대회 해트트릭을 기록한 세번째 선수가 되었으며 폭발적인 FW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에크는 개인득점에서도 4골로 루메니게와 공동선두를 달리고있다。

폴란드는 보니에크와 스몰라레크를 공격전방에 내세운 공격적 포진으로 성과를 올렸으며 라토, 분록, 쿰제비치등이 훌륭한 호흡으로 공격을 지원하여 쾌승했다。

특히 이날 벨기에와의대전으로 국제경기출전 1백회를 맞은 HB 글레고르츠·라토(32)는 2골을 어시스트, 수훈선수가 됐다。

프랑스는 주장인 플라티니를 부상으로 잃고 전반15분 골게터인 베르나르·라콩브가 늑골의 상처로 그라운드를 떠났지만 장·티가나, 알랭·지레스, 장기니등의 맹활약으로 시종 경기를 주도했다。 30여m지점서 오스트리아 수비벽을 뚫고 프리킥을 직접 득점으로 연결, 프랑스 응원단을 열광시켰다。

◇2차리그 첫날

▲A조

폴란드 3 (2—0, 1—0) 0 벨기에
(1승) (1패)

▲D조

프랑스 1 (0—0, 1—0) 0 오스트리아
(1승) (1패)

◇이것이 프리킥이다 2차리그 첫날 프랑스—오스트리아대전 전반40분께 프랑스의 베르나르·장기니⑬가 오스트리아의 수비벽을뚫고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올리는순간。 【마드리드 28日AP電送=聯合】

월드컵通信

敗戰 歸國 온두라스팀、熱狂的 환영소동

칠레主審 火刑式도

◆…경기종료2분전 유고에게 통한의 페널티킥을 허용, 2차리그에 오르지못한 온두라스 선수단은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마치 개선장군으로 착각될 정도였다。

경기종료2분전 유고에 뼈아픈 페널티킥을 허용, 2차리그 진출에 실패했던 온두라스 선수단의 귀국모습은 개선장군으로 착각할 정도。

선수단을 태운 여객기가 톤콘틴공항에 도착, 공중을 선회하는동안 1만여명의 시민들은 활주로위를 뛰어다니며 환호했고, 소방호스에 밀려 대기실로 쫓겨난 시민들은 흥분끝에 유리창과 기물들을 부수기도。

선수단은 이어 공항서 4·8㎞떨어진 국립경기장까지 시가행진을 한후 코르도바 대통령과 3만명의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군중들은 온두라스—유고대전을 맡았던 칠레주심 火刑式을 갖고 울분을 풀기도。

유고選手團은 "반역자다" 空港서 야유받아

골키퍼등에만 拍手

◆…1차리그서 탈락한후 귀국한 유고선수단은 시민들의 냉랭한 대접에 당황。

공항에 나와있던 2천명의 시민들은 22명의 선수중 골키퍼 판텔릭과 이반·구델즈 밀로즈·데스틱등 5명에게만 박수를 보냈을뿐 경찰의 경호를받으며 나오는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반역자」「게으름뱅이」등의 야유를 퍼부었다。

특히 영국의 아스날, 파리의 생·제르멘구단과 계약한 스타플레이어 블라드미르·페트로비치와 사페트·수직은 가장 심한 야유를 받았다。

탄유그통신은 흥분한 팬들이 수직의 승용차를 부쉈다고보도。

코피協서 축구지원

◆…브라질코피협회는 지난3년간 축구선수들의 훈련 및 각종지원을 위해 3백만달러를 기부했다고 오타비오·라이노 브라질코피협회회장이 자랑。

그는 80년에 75만달러, 81년에 1백25만달러, 금년에 1백50만달러를 축구중흥에 투자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를 생산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런던의 국제코피기구(ICO)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피협상이 브라질대표단의 월드컵 축구관전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며 ICO이사인 브라질의 알레한드레·벨트라오씨는 코피협상은 아예 제쳐두고 TV앞에 앉아 브라질팀의 경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3골이면됐지 엄살

◆…벨기에와의 경기서 해트 트릭을 기록한 폴란드의 붉은머리 스타·플레이어 보니에크는 경기가 끝난후 『유벤투스의 지오반니·트라파토니 코치가 스탠드에서 내 경기모습을 지켜보고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세골을 넣었으니 별로 잘못된건 없지 않겠느냐』고 조크。

한편 폴란드의 피에크니체크감독은 보니에크가 부상으로 고생했으나 이제 회복됐으므로 폴란드의 새로운면모를 보여주겠다며 자신만만。

펠레、公開축구

"主審2人制 바람직 警告보다 5分퇴장"

스페인 월드컵축구대회를 참관, 전 세계에 「펠레·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펠레는 28일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현재의 축구경기규칙을 시대에 맞게 대폭개정할것을 촉구했다。

펠레는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드의 한쪽에 한명씩, 2명의 주심이 경기를 관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래야만 정확한 시간、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판정을 내릴수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규칙을 어긴선수들에게 경고(옐로카드)를 하는 제도보다는 아이스하키처럼 5분간 퇴장시키는등의 처벌이 합리적이며, 무승부의 경우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결정하는방법은 재고돼야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오프사이드 규칙을 유통성있게 개정하고 선수의 의사에따라 드로·인과 킥·인(차서넣는것)을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펠레는 강조했다。

한국、銅12개 확보

許永模·金東吉도 準決에

亞洲 아마복싱

제10회 아시아 아마복싱선수권대회 3일째 경기가 28일 잠실체육관에서 속행, 한국의 許永模(라이트플라이급)는 1회RSC승으로, 金東吉(라이트웰터급)은 부전승으로 각각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전날4개의 銅메달에 이날2개를 추가했고 대회참가만으로 6개체급에서 銅메달을 확보하여 12개전체급서 銅메달을 얻은 셈이되었다。

許永模는 이날 첫라운드공이 울리자마자 印度 샤루감을 원 투스트레이트로 맹타, 54초께 라이트 훅을 안면에 적중시켜 첫다운을빼앗았다。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許는 소나기펀치를 퍼부어 2분12초께 원투 스트레이트에 이은 좌·우훅으로 또다시 샤루감을 다운시키고 통쾌한 1회 RSC승을 거두었다。

같은급의 세가와(일본)는 파키스탄의 북스를 KO로 눕혔다。

세가와는 첫라운드 46초께 라이트 단발로 북스를 다운시킨뒤 1분50초께 스탠딩다운을 빼앗아 월등한 기량을 과시했다。

세가와는 레프트에이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북스의안면에 가격, 1라운드 2분3초만에 이대회 첫 KO승을 거두었다。

日本拓殖大 3년생인 세가와는 全日本 학생선수권대회 3년연속 우승한선수로 라이트플라이급서 許永模와 패권을 다투게될것으로 보인다。

지난4월 뮌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銀메달을 확보, 金메달후보로꼽히던 金東吉(라이트 웰터급)은 방글라데시의 칸다커에게 부전승을 거두었다。

이번대회서는 출전선수들이 대폭줄어 대부분1게임만 이기면 동메달을 확보할수있고 웰터, 미들, 라이트헤비, 슈퍼헤비급등4체급은 각각 출전선수가 4명밖에없어 출전만하면메달을따게되었다。

◇제3일전적

▲라이트플라이급준준결승

許永模(한국) 1회RSC 샤루감(인도)
찰름모(태국) 판정 비자얀(말련)
세가와(일본) 1회KO 북스(파키스탄)
라트나수리아(스리랑카) 판정 수이사(인도네시아)

▲라이트웰터급준준결승

金東吉(한국) 부전승 칸다커(방글라데시)
사디크(파키스탄) 판정 본사피아(인도네시아)
우모르마하른(태국) 1회RSC 찬드(인도)

▲헤비급준준결승

살람(파키스탄) 2회RSC 살레(쿠웨이트)

실업야구

鄭求善、연타석 홈런

經理團、韓電을 11-4 격파

실업야구하계리그 4일째 경기가 29일 농협구장에서열려 經理團의 鄭求善이 7·9회초 연타석홈런을 날리는등 모두 16안타로 韓電을 두들겨 11—4로 대승했다。

商銀은 홈런1개씩을 주고받으며 農協과 1—1로 비겼다。

◇제4일전적

경리단(2승1무)	0	0	4	2	0	1	3	0	1	11
한전(3패)	0	1	2	0	0	1	0	0	0	4

▲홈런=鄭求善(7회·2점·9회·경리) 朴明善(6회·한전)

농협(1승1무1패)	0	0	0	0	0	0	0	1	0	1
상은(2승1무)	0	1	0	0	0	0	0	0	0	1

▲홈런=李三烈(8회·농협) 金洙男(2회·상은)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流星의 賦 <421>

李炳注 作
李友範 畫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⑲

만좌는 홍계남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침묵이 오래 끌었을 무렵, 신불의 말이 있었다。

『홍장군께 아뢰옵니다。 김금단에 관한 생살의 권(權)을 제게 맡겨 주소서』

한참을 있다가 계남의 말이 있었다。

『김금단을 사로잡은건 신공의 공적이오。 이미 김금단의 운명은 신공의 손아귀에 있었소。 그러니 다시 무슨말을 하겠소。 신공이 금단의 운명을 맡겠다고 제의한이상, 신공에게 맡기겠소』

이어 국문이 끝났으므로 해산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신불은 김금단을 자기 막사로 데리고가서 포박을 풀었다。 그리고 조용하게 다음과 같이말했다。

『나도 미천한 종의 출신이오。 나에겐 이름도 성도 없었소。 내가 받은 수모를 헤아리면 당신이받은 수모보다 지독했으면 했지 덜하진 않으리다。 그런데도 내가 원수(怨讐)의 감정을 누르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 분신(奔身)하는 것은 나라전체가 왜놈의 종이될판이어서 그걸 방지하자는데 있소。 종으로서의 신세가 얼마나 험난합디까。 그것을알고 있는만큼 나라전체가 종이 된다는 상황은 견딜수 없는 일이었소。 낭자의 심정은 잘알지만, 낭자의 잘못도 크다는 말도 아니할 수가 없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가 아무리 다급하기로서니 왜놈들에게 붙는다는 것은 집안에 화풀이를 하기위해서 화적떼와 야합하는것이나 조금도 다를바가 없소。 뿐만아니라 낭자와같은 어여쁜 여자가 왜놈의 품에 즐겨안겼다고 하면 이나라 모든여성들의 체면에 똥칠을한 것으로 되는것이오。

지난일 말해 무엇하겠소만 낭자의 분함이 그만큼 컸다면 난리를 빙자해서 성진사의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정도가 적당했던것이오。 부모의 원수를 갚았다는 갸륵한 행동이 왜놈에게 붙었다는 그사실만으로 아무런 생색도 되지않고 말았소』

김금단은 고개를 숙인채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낭자에게 자유를 주겠소。 지금 당장 걸어나가도 좋소。 내 곁에 남을 의사가 있으면 기왕 일체를 잊어비리고 요조숙녀로서 낭자를 받들리다』

김금단은 그때사 고개를 들고 신불을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늦었소이다』

하고 한숨을 섞었다。

『세상에 늦은 것이란 없소。 마음 먹기에 달린거요。 하여간 생각할 여유를 드릴 테니 홀로 이곳에 앉아 결단을 내리시오。 거듭 말하거니와 이곳에서 걸어나가도 좋고 내 곁에 남아 있어도 좋소』

신불이 바깥으로 나와 막사 뒤의 소나무에 몸을 숨기고 막사의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김금단이 막사를 나서더니 느릿느릿 비탈길을 걷기 시작 했다。 백보쯤 내려가면 보초선이 있을 것이었다。 신불은 그녀가 보초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령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이 감당못할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불이 전령을 보낼 필요는 없었다。 김금단은 보초선에 도착하기 전의 지점에서 알맞은 소나무 가지를 골라 치마끈으로 목을 매 자결한 것이다。

한국관
연중무휴
○ 회의실 마련
○ 각종파티 환영
○ 저렴한 음식가격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나옥녀 ☎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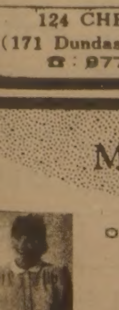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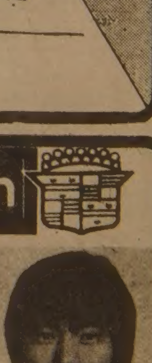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 Ⓟ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블란서, 이태리 챗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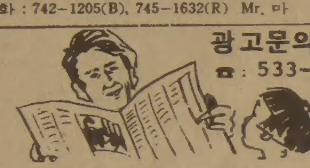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램튼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싼값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회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보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7－5830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전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완인태권도 ［漢字 illegible］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건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한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조 지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한국요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여자분) 구함.
전화 : 537－0432

Part Time (시간당 $7.00)
전축일에 취미있으신.신체 건장한 35세 전후의
남자분 구 함. 전화 : 249－0003

유경험자 Store Helper(남자) 구함.
Full Time, 전화 : 422－3121 (Mr. 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Room Mate 구함.(Downtown)
2 Bed Rm. Apt. 유학생 부부입니다.
전화 : 233－9534 (Mr. 정)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20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입주하셔서 애기 보아주실 분 구함.
(월 $600지불) Jane & Weston
전화 : 447－1460 세시 이후에 연락바람.
(1살· 4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단, 경험자 한함)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임.
전화 : 534－8121 (Dennis)

가정에서 봉재일 하실분 연락바람.
전화 : 530－1046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구직

스토아 매니져.
경험있으며 성실하게 일해 드리겠음.
전화 : 466－4578 Mr. 정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2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7,000이상. 리스: 2년＋5년.
렌트 : $600, 아스킹 : $98,000＋스탁(All Cash)
꼭 관심있으신 분만 내방바람. 전화 : 767－0762

Variety & Milk Store 매매.
리스 : 10년＋Negotiation, 렌트 : $350, 주매상 : $3,000 (계속상승)
2층 살림집을 Rent할 수 있음. 전화 : 757－6458 (Mr. 박)

Variety Store 매매 (다운타운 지역)
주매상 : $5,000, 렌트 : $995(4 Bed Room 포함)
리스: 8년＋5년 전화 : 463－4846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 + 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 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 요망.(주중 9:00a.m.～18:00p.m.)

1) Dry Cleaning Pick Up Store
Weekly Turnover: $1,000, Asking Price: $35,000
3 year lease + 3 year option, Store + 4 Bed Rm.Apt.
May be leased or bought.
2) Donuts Shop
Weekly Turnover: $4,000, Asking Price: $135,000
$65,000 down, Rent: $2,000 5 year Lease + 3 year option
Mr. Ryu 762－8255
Royal Trust Real Estate Co.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Varity Store for Sale(Hamilton) 전화 1－529－7491
(1)Store with 3 Bed room House, 년매상: $110,000 계속증가.
(2)Business only, 년매상: $300,000+곧 써브머린 open(최고지역)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남아있음.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고급 Van.(81년 G.M.C.) 팝니다.(Still Warranty)
내부 완전히 꾸며져 있음(소파, Bed, 탁자, 카페트등)
13,000 Km. 전화 : 862－1623(오전) 694－9399(저녁)

Duplex House for Sale (Georgetown)
가격 : $56,000, 다운페이 : $6,000, 모개지 Hold해 줄수 있음.
Royal City Realty, Ltd. 전화 : 846－0800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로타리오와 Vedeo머신에서 월 1,500불 수입.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Donut Shop 매매 (Downtown 지역)
주매상 : $5,500～$6,000, 순이익 : $6,500이상(M.) 리스 : 17년
아스킹 : $20만, 다운페이 : $9만. 전화 : 977－2299(Mr. 최)

성업중인 선물가게 건물포함 매매.
Bloor 중심가에 있음. 663 Bloor St. W
꼭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월.화.수(9 a.m～7 p.m) 목.금(9 a.m～9 p.m)
토(9 a.m～5 p.m) Alfredo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매매 (2804 Dundas St. W.)
주매상 : $3,000 렌트 : $650 (살림집포함)
리스 : 5년 꼭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Mrs. 김)

아파트렌트

Sublet (1 Bed Room: 3개월간 Rent도 가함)
$280 + 하이드로(M.) Oldmill Subway에서 T.T.C로 10분거리
전화 : 231－9701 Mrs. Kim (6시반 이후 연락바람)

집렌트

셋방 있음 (1 Bed Rm + Kitchen)
$200/m.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문의시간 : 오후 1:00～오후 9:00(일요일도 가함)

성공적인 사업투자 !

침체된
당신의 사업을
한국일보 광고로
해결하세요.
지혜롭게
불경기를
극복하실 것입니다

☎ : 533－2361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2ND CLASS MAIL NO. 5248